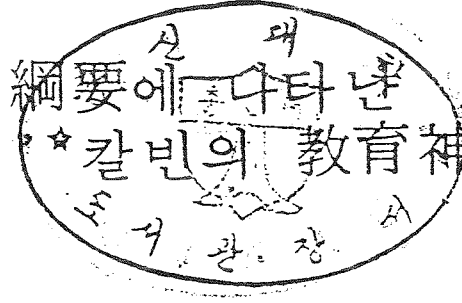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金得龍指導教授

CT
268.00
57517

基督教



綱要

에

★

칼빈의

다타년

교육

신학

연구소

연구

학

신

학

연구

학

신

학

연구

학

신

학

연구

학

신

학

1979

總神大學 大學院

고신대학교



DM00001314

神學科 實踐神學專攻

黃 晟 喆

31075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動機와 目的	1
2. 研究의 範圍 및 制限	3
3. 研究의 進行方法	4
II. 칼빈의 神學思想 理解	5
1. 基督教 綱要	5
A. 歷 史	5
B. 思想的 원천	12
C. 쓰게된 目的	19
2. 칼빈의 神學	21
A. 序	21
B. 聖經에 關한 敎理	23
C. 하나님에 關한 敎理	30
D. 人間에 關한 敎理	37
E. 그리스도에 關한 敎理	44
F. 教會에 關한 敎理	51
III. 敎育神學 理解	65
1. 序	65
2. 神學과 敎育의 定義	65
3. 神學과 基督教 敎育의 目的	70

4. 基督教教育의 理論的 根拠로서의 神學	75
IV. 칼빈의 教育神學 理解	82
1. 教育者 칼빈	82
A. 序	82
B. 제네바 아카데미	85
C. 칼빈의 教育思想	88
2. 칼빈의 教育神學 內容	98
A. 聖經	98
B. 三位一體 하나님	103
1) 聖父 하나님	103
2) 聖子 하나님	108
3) 聖靈 하나님	113
C. 人間	116
D. 敎會	122
V. 結論 : 結言 및 提言	128
參考文獻	133

I . 序 論

1. 研究의 動機와 目的

教育神學이란 基督敎教育의 根柢를 마련하기 爲한 새로운 學問的 提案인 것이다. 이 教育神學은 基督敎教育和 基督敎의 行爲全體를 뒷받침하는 經書的 解釋, 啓示, 하나님 의 理解, 人間理解, 世界와 歷史의 理解 그리고 教育課程과 方法까지의 모든 問題들을 取扱하는 學問인 것이다.¹⁾

이 學問的 試도는 神學이 基督敎教育의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神學이 基督敎 教育의 궁극적 目標나 目的을 決定하기 때문이다.²⁾

「基督敎的」(Christian)이라는 單語自體가 벌써 神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基督敎教育和 神學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神學的 含義의미 (theological implication)는 基督敎教育의 全領域에 影響을 주고 있다.³⁾

그런데 問題는 基督敎教育의 理論的 根柢를 마련하여 주는 神學들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적지 않은데 있다. 예를 들면 改革主義와 알미니안主義는 모두 新敎의 範疇안에 있으나 그 차이는

1) 은준관 : 『 교육신학의 가능성 』, 신학사상 6집, 한국신학연구소, 1974, p.583.

2) Harold C. Mason : Abiding Values in Christian Education, Westwood : Fleming H. Revell Co., p.27.

3) Ibid.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福音主義, 新正統主義, 自由主義의 사상적인 차이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⁴⁾

事實 基督教 敎育은 이미 그 基礎에만 아니라 各 細部에 이르기까지 여러 神學이 스며들어 있으며, 지금까지 基督教 敎育者가 健全한 神學者가 되지 못한 까닭에 敎育活動에 있어서 混亂과 도탄中에 빠지게 되어 基督教 敎育의 本 軌道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⁵⁾

이와 같은 問題提示를 一貫性 있는 神學思想 위에서 해결하여 보고자 이 研究를 積分的으로 시도한 것이다.

칼빈은 Melancton이 처음으로 부른 바와 같이 “神學者”(a theologian)였다.⁶⁾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一生 活動을 통해서 볼 때, 決코 神學者로

만 制限시킴이 尙當치 않음을 보게 된다. 아마도 P. Vollmat

의 表現이 적절할 것이다. 그는 “John Calvin”이란 내에서

4) Prank E. Geabelein : “Toward a philoroply of christian education” an introduction on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ed., Edward J. Hakes, Chicago Press

5) 김득룡 : 기독교교육학원론, 총신대출판부, 1976, p. 210.

6) Petot, Y. De. Jong : “Calvin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journal, Vol. 2, No. 2, 1967, Nov., pp. 162-201, p. 165.

칼빈을 神學者, 說教者, 教育者 그리고 政治家로 기술하고 있다.⁷⁾

神學者로서 뿐만 아니라 教育者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우리는 제네바라는 한 도시를 통해서 分明히 보게 된다. 칼빈은 자신의 神學思想을 教育을 통하여 實踐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칼빈이 갖고 있었던 神學思想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神學思想이 基督教教育을 實踐하는데 그 兩者가 相互 一貫性 (Coherence) 과 적용성 (Applicability) 을 어떻게 갖었는가를 밝힘이 본 研究의 目的이다.

2. 研究의 範圍 및 制限

本 論文은 基督教 教育의 새로운 學問的 시도로서의 教育神學을 칼빈의 基督教 綱要를 中心으로 하여 그 根本的인 形態와 理解를 研究하고자 한다.

基督教 綱要 그 自體만은 大端히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다만 칼빈의 가장 中心되는 部分들만을 뽑아서 引用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칼빈이 理論과 實踐을 信仰共同體內에서 뿐만 아니라 信仰共同體外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全 世界로 확산시켰던 事實을 감안하여 다만 教育神學의 可能性만을 問題로 提起하였다.

그리고 칼빈에 關한 研究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섭렵할 수는 없었고 극히 制限된 文獻에 局限했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7) Ibid.

3. 研究의 進行方法

本 論文은 모두 5 章으로 되었다. I 장은 序論, II 장은 칼빈의 神學思想을 理解하는데 썼다. 칼빈의 聖經에 關한 敎理, 하나님에 關한 敎理, 人間에 關한 敎理, 그리스도에 關한 敎理, 그리고 敎會에 關한 敎理 순으로 構成했다. III 장에서는 敎育神學의 理解를 神學과 基督敎 敎育의 定義와 目的을 밝히면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IV 장에는 本論文의 핵심인 칼빈의 敎育神學을 學問的으로 시도해 보았다.

여기에는 Nels F.S. Ferré 박사의 敎育神學 形態를 칼빈의 思想에다 응용하였다. 결론인 V 장에서는 칼빈의 敎育神學이 더욱 具體化된 것과 그로 말미암아 改革主義立場의 基督敎 敎育이 強化된 것을 提言함과 나의 結言으로 끝을 맺었다.

II. 칼빈의 神學思想理解

1. 基督教 綱要

A. 歷史 : 神學者이며 信者인 同時에 牧會者요, 프랑스 新敎의 組織者와 제네바大學의 創設者이며 雄辯家와 聖經註釋家 그리고 빌베드로 寺院의 說敎者였던 칼빈⁸⁾은 聖經註釋 論爭書 보다 작은 敎理書 그리고 倫理에 關한 論文들을 著述했다.

그 가운데서도 基督教 綱要是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고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다.

綱要是 칼빈의 神學思想을 集大成한 것으로 基督教 敎理의 要縮가 되는 것을 完備하게 담고 있다.⁹⁾

그래서 Brunetiere 은 말하기를 "칼빈에 關한 거의 모든 것은 基督教 綱要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칼빈을 알려고 하면 이 책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¹⁰⁾

基督教 綱要在 나오자 世界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칼빈은 즉시 福音主義 信仰의 참피온들 中에서 最上位를 차지하게 되었다.¹¹⁾ 이 책은 知的이며 靈的인 깊이와 能力을 所有한 早熟한 天才의 傑作인 것이다. 그래서 改革派 敎會의 Aristotle이며 Thomas

8) Jean-Daniel Benoit : "Pastoral Care of the Prophet" John Calvin-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51-67, p. 51.

9) Francois Wendel: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 New York: London and Harper & Row, 1963. p. 111.

10) A. Mitchell Hunter : The Teaching of Calvin, Westwood: Fleming H. Revell Co., 1950, p. 9.

1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Grand Rapids: Eerdmans, 1969, p. 328.

Aquinas 라는 二重의 別名을 붙이는 人들까지도 생기게 되었다.¹²⁾ 로마 敎회는 이 책의 危險性을 認定하였음인지 佛敎의 Koran 이니 Talmud 니 하여 즉시 맹렬한 攻撃을 퍼부었고¹³⁾ 卍리나 다른 地域에서는 태워버리는 事態까지 발생했다.¹⁴⁾ 한편 福音主義者들은 網羅의 出現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使徒時代以後 가장 명석하고 가장 論理的이며 가장 確信에 찬 基督敎 敎團의 守護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¹⁵⁾ 이 책이 出版된 數週後 부처 (Bucer) 는 칼빈에게 다음과 같은 便紙를 썼다. * 主님께서는 分明히 貴下를 그의 尊으로 擢하시어 가장 尊요한 恩惠를 敎會에게 伝達하도록 하셨습니다.¹⁶⁾

16 세기의 主要作品 가운데 하나인¹⁷⁾ 기독교 강요는 基督敎 神學思想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려 福音運動을 活潑히 움직이게 한 強力한 힘을 마련하여 주었다.¹⁸⁾

基督敎 網羅의 初版¹⁹⁾은 1536年3月 바젤에서 Thomas Platter

12) 로마카톨릭의 史家인 Kampschulte 와 몇몇 학자들은 칼빈을 "Aristotle" 이라고 불렀고, 프랑스의 史家인 Martin 과 그의 몇몇 학자는 그를 가르켜 "新敎의 Thomas Aquinas" 라고 불렀다. Schaff, op.cit., p.329.

13) Ibid., p.329.

14) Ibid.

15) Ibid.

16) Ibid.

17) T.H.L. Parker: Portrait of Calvin: SCM Press, 1954. p.45.

18) De Jong: op.cit., p.165.

19) 이 硃本의 사본은 에딘바라의 New College 도서관과 Tolbooth 도서관에 있다. Hunter, op.cit., p.10.

와 Balthasar Lasius 두 출판사에 의해서 出版되었다.²⁰⁾

516 페이지의 옥타브 (Octavo) 版으로 된 이 작은 책²¹⁾은 6章으로 되어 있다.

첫 4章은 律法, 信經, 主祈禱 그리고 禮禮典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Luther의 禱禮問答卷의 순서에 따라 配定된 것이다.²²⁾

그리고 5章과 6章은 論爭的인 方法으로 각각 거짓 禮禮와 그리스도인의 自由를 다루고 있다.²³⁾

강요 初版의 主題는 使徒信經에 따랐다.²⁴⁾ 基督教 綱要의 好評은 大端했다. 一年이 채 못돼서 初版이 完全히 매진되었다.²⁵⁾

더우기 注目할 만한것은 이 책이 Latin語로 쓰여졌다는 事實이다.²⁶⁾

그러므로 이 책은 소수의 知識層에만 制限될수 밖에 없었다.²⁷⁾

1539年8月 칼빈은 다시 새로운 Latin語版 綱要를 出版하였다. 강요 제2판은 Alcuin이라는 익명下에 Strasburg의

20) F.Wendel: op.cit., p.112.

21) 페이지 數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차이가 있다. A.Mitchell Hunter . (The Teaching of Calvin p.10.)은 514 페이지 주장하고, Francois Wendel(Calvin: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p.112)은 516 페이지를 주장하고, John T.McNeill(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p.121)과 Jean-Daniel Benoit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Institutes: How Calvin worked, in John Calvin:A Collection of Essays,p.102)는 520 페이지를 주장한다.

22) F.Wendel: op.cit., p.112.

23) Ibid.

24) A.Hunter: op.cit., p.10.

25) F.Wendel: op.cit., p.113.

26) Ibid., p.113.

27) Ibid.

Wendelin Rihel 出版社에 의해 出版되었다.²⁸⁾ 그런데 Hunter
 는 바젤의 Platter 出版社에서 出版되었다고 하였다.²⁹⁾ 이번에는
 그 舊名을 바꾸어 Institutio Christiane Religionis 라 하
 였고³⁰⁾ 그 부피도 상당히 增補되어 6 章에서 17 章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아름다운 책이었다. 裝本이 잘되고 印刷
 가 깨끗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文體가 대단히 아름다웠다.
 칼빈의 文章이 最高度에 달할 때는 이 Strasburg 時代였다.³¹⁾

이 1539 年 版에서 칼빈은 그 序頭를 두개의 새로운 章으로
 장식하였다. 하나님에 關한 知識과 人間에 關한 知識으로 된
 두 章이다. 또한 再洗禮派를 보다 더 논박하기 爲하여 新約과
 舊約의 關係를 取扱하는 새로운 章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稱意에
 關한 두개의 새로운 章과 豫定과 禱禱의 敎理를 처음으로 組織化
 하였다. 이와같은 結果가 있기까지는 Strasburg 의 改革者
 Bucer 와의 對話와 別 Augustine 研究를 通하여 되어졌다.
 마지막 章 그리스도인의 信仰生活은 칼빈 自身の 牧會經驗은 勿論
 1538 年에 나온 Bucer 의 "靈魂의 참된 치료" (The True
 Cure of Souls) 의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³²⁾

1539 年 版은 그 形式과 內容이 다같이 현저한 差를 보여주
 는 책이었다. 그의 讀書도 광범위해서 別 Augustine 以外에도
 여러 헬라敎父들, 특히 Origen 을 引用하였고, 中世神學者들의

28) Ibid., pp.113-114.

29) A.Hunter: op.cit., p.10.

30) 강요 제1판의 舊名은 Christiane Religionis Institutio
 이었다.

31) T.H.L.Parker: op.cit., pp.37-38.

32) F.Wendel: op.cit., p.114.

이름도 상당히 눈에 뜨인다. 그리고 神學者뿐만 아니라 古代 思想과 敎會史에도 大端한 關心을 나타내 보였다.³³⁾

1541年, 그러니까 1539年 Latin語 제 2 판이 나온지 2年이 지나서 칼빈은 母國語인 프랑스語로 이를 번역하여 제네바의 Jean Giraud 出版社를 통하여 出版하였다.³⁴⁾ Latin語版이 知識人을 위한 著作이라고 하면 프랑스語版은 프랑스, 제네바 그리고 이웃나라의 大衆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 이 프랑스語版이 끼친 영향은 루터의 獨語聖經과 그의 다른 著作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直接的인 것이었다.³⁵⁾ Latin語版과 프랑스語版으로된 강요는 다같이 1542年 7月 1日 프랑스 巴黎議會로 부터 異端者의 책으로 낙인찍혔다.³⁶⁾

강요 제 2 판이 발간된후 4年이 지난 1543年에 Latin語 제 3 판이 21章의 분량으로 출판됐는데 이것은 初版에 비해 6 배에 가까운 509 페이지짜리 큰 책이었다.³⁷⁾

칼빈은 제 3版에서 부터 使徒信經의 主題를 따라서 총 21章을 4部分으로 나누기 시작했으며 1559年의 決定版에서 그 完全한 모습을 보게 된다.³⁸⁾

이 책을 1545년에는 프랑스語로 번역하였으며 同年에 라틴語版이 再版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正確하게 다루는 問題는 修道誓約과

33) Ibid., p.115.

34) Ibid., p.116.

35) Ibid., p.117.

36) Ibid.

37) A.Hunter: op.cit., p.10.

38) F.Wendel: op.cit., p.117.

人間的 伝統에 關한 것이며, 새로운 引用文들이 현저하게 눈에 뜨인다.³⁹⁾

수차례 版을 거듭한 후,⁴⁰⁾ 1559年에 제네바에서 최증판이 나왔다. 권위있는 版이었으며, 이 版에는 모든 문제가 實際적으로 改訂되어서 集大成됐으며 칼빈의 엄청난 勞働가 결들었다.⁴¹⁾

칼빈은 1559年 7月 1日에 쓴 便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最終版은 改訂됐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첨가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기 爲해서 변경도 했읍니다. 이것이야 말로 나의 모든 著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중요한 作品입니다.」⁴²⁾

칼빈은 이 決定版을 임종을 바라보면서 悲壯한 작오로 세 내려간 事實을 決定版 序文에서 읽을 수 있다. 「昨年 겨울 四日熱에 걸려 죽음의 날이 오리라고 생각되었을때, 나는 病勢가 惡化되던 필수록 한층 더 手楮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을 다 세내었다.⁴³⁾

1559年 Latin語 決定版이 나온지 1年후, 즉 1560年에는 프랑스語版 強요가 번역되었다.

이 Latin語 最終版은 完全히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改訂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補綴를 하였다. 부피도 21장에서 4배가 되는 80장으로 늘어났다.⁴⁴⁾ 그 形式도 1536年에 初版의 體裁問答

39) Ibid.

40) 1550년과 1557년 사이에 출판된 版數는 모두 7版(라틴어와 프랑스어)이다.

41) A. Hunter: op.cit., p.10.

42) Ibid., p.10.

43) 한철하, 신복운 공역: 기독교 강요, 생명의 말씀사, 1964, p.7.

44) 제1권은 18장, 제2권은 17장, 제3권은 25장, 제4권은 20장으로 모두 80장이었다.

순서에서 벗어나 使徒信經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聖靈 그리고 教會의 四部로 再構成하였다.⁴⁵⁾

1559年版 基督教 綱要는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第一篇의 題目은 「創造主이신 하나님 知識에 對하여」이며 自然界, 聖靈 하나님을 認識하는 것은 오직 聖靈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 偶像과 하나님과의 區別, 三位一體의 하나님, 憑의 存在는 하나님의 權을 奪을 奪하지 못한다는 것등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第二篇은 「救贖主이신 하나님 知識에 對하여」이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論한다. 곧 人間의 罪惡과 自由意志의 喪失을 主張하여 人間에게는 自身을 구원할 能力이 없다는 것을 論하고, 제3장 以下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律法과의 關係, 舊約과 新約의 關係, 그리스도의 人格과 그 事役의 順序로 論述해 나간다.

第三篇에서는 聖靈에 對하여 論하고 있으며, 이와 關係하여 「그리스도의 救贖의 恩惠를 받는 手段」 곧 信仰에 對하여 論하고 있다. 信仰, 重生, 回心, 그리스도인의 生活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인의 生活에 對해서는 克己, 十字架, 終末思想, 聖潔行爲, 自由, 祈禱, 豫定, 最終復活등 여러가지 重要문제를 論하고 있다.

第四篇에서는 教會를 論한다. 참된 教會와 거짓된 教會, 使徒時代의 教會, 로마教會, 信經과 教會와의 關係, 會議과 그 權威, 教會의 聖禮典, 政治的 統治 등을 그 內容으로 陳述해 나아간다.⁴⁶⁾

45) F.Wendel: op.cit., p.119.

46) 한철하, 신복음: op.cit., p.361.

다소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1559년의 決定版은 永遠히 남을 記念碑的인 傑作이다. 참으로 改革教會의 神學的 總體(Summa)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⁴⁷⁾

基督敎 綱領의 出版은 신속하고도 셀수 없을 정도였다.⁴⁸⁾

이 책이 유럽의 宗教改革에 미친 영향이야말로 攄大한 것이었다. 만일 기독교 강요가 없었다라면 루터가 죽은 후 新敎가 어떠한 상황에 빠졌겠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귀착점을 잃고 흐트러졌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使用한 책이라고 우리는 確信하는 것이다.⁴⁹⁾

B. 思想的 源泉 : 칼빈이 自己 神學的 著作에서 表現한 思想의 源泉이 聖經이었다고 하면, 그의 著作들이 다만, 個人的 意見에만 依存하지 않았다는 것이 確實하다.⁵⁰⁾

칼빈은 Luther나 Zwingli, Melancton이나 Bucer보다 젊은 世代에 속했기 때문에 저 先輩들의 著作이나 活動과 關係없이는 自身の 일을 充分히 해낼수 없었을 것이다.⁵¹⁾ 그는 自己思想의 權威와 獨創性을 爲해서 주르 以前 神學者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²⁾ 이것 때문에 칼빈은 獨創的이라기 보다는 組織的인

47) Ibid., p.112.

48) 1620년까지 9개국어로 74版이 발간되었으며, 14개의 요약판이 나왔다. A.Hunter: op.cit., p.11.

49) 한철하, 신복운: op.cit., pp.361-362.

50) F.Wendel: op.cit., p.122.

51) Ibid.

52) Ibid.

思想家라 불리워지기도 한다.⁵³⁾

이와같은 사실은 신학자들로부터 하느님 칼빈사상의 起源을 탐구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칼빈을 루터의 가장 充實한 弟子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칼빈의 敎理가 全部이건 部分이건 Augustine이나 Bucer에게서 滲透된 것이라 주장하였다.⁵⁴⁾

如何든 이와같은 문제의 올바른 答을 내리기 爲하여는 칼빈의 모든 著作과 다른 思想家들의 著作들을 充分히 그리고 所當히 比較研究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대한 일이고, 거의 不可能한 일이기여 여기서는 다만 部分的으로만 칼빈의 思想的 源泉을 살펴보기로 한다.⁵⁵⁾

칼빈이 聖經學識을 아주 豊富하게 研究하였다는 사실은 再論을 不贅한다. 특히 旧約에 對하여는 어느 다른 改宗者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知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自己思想의 基礎를 聖經에 두었고 全著作도 다 聖經에 基礎하고 있다.⁵⁶⁾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음직이지 않는 磐石위에 自身을 穩固히 세우고 信仰과 行爲問題에 있어서 聖經을 유일하며 가장 妥當한 案內者로 確信하였던 것이다.⁵⁷⁾

칼빈은 聖經을 無疑心한 科學者처럼 研究하거나 解釋하지 않고 聖 Augustine과 Luther의 解釋者처럼 神學的 立場의 確信을

53) 신복운, 기독교강요 :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 배경(III) 신학지남 179호 (1977. 겨울호) pp.8-16, p.8.

54) F.Wendel: op.cit., pp.122-123.

55) Ibid., p.123.

56) Ibid.

57) P.Schaff: op.cit., p.330.

찾으려는 情熱을 가진 神學者였다.⁵⁸⁾

그는 17世紀의 스콜라神學者들 처럼 기계적인 方法으로 聖經을 하나의 証文書로 보지 않고 有義的인 書翰로 보고 그것으로 엮어 자기 神學體系를 形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聖經權威의 基礎를 聖經自體의 固有의 卓越性과 信者에게 말씀하시는 聖靈의 証文에 두고 있는 것이다.⁵⁹⁾

둘째로 칼빈은 教父들의 많은 著作들을 깊은 關心을 갖고 읽었으며 引用하였다. 특히 聖 Augustine을 많이 引用하였다. 칼빈은 教父들을 引用하되 眞理의 審判者로서가 아니라 証人으로서 引用하였다.⁶⁰⁾

칼빈은 특히 헬라教父들 중에서 聖 John Chrysostom을 좋아하였는데 그 理由は 聖經解釋에 있어서 古代의 모든 教父들보다 踴躍하였기 때문이다.⁶¹⁾

그러나 칼빈에게 決定的인 影響을 끼친 教父는 聖 Augustine이었다. 그는 聖 Augustine의 著作를 계속 읽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聖 Augustine을 引用하였고, 그의 表現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論争에 있어서 聖 Augustine을 가장 훌륭한 同輩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聖 Augustine이 聖經解釋에 있어서 獨有적 方法을 使用한데 對하여 가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聖經의 가장 충실한 解釋者로 간주한데서 항상 齟齬가 없었다.⁶²⁾

58) F.Wendel: op.cit., p.123.

59) P.Schaff: op.cit., p.330.

60) Ibid., p.331.

61) F.Wendel: op.cit., p.124.

62) Ibid., p.124.

그러나 칼빈이 敎父들에게서 여러가지 點에서 一致點을 發見했다고 해서 敎父들의 傳統的인 概念으로 돌아가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聖經만이 信仰의 規範的인 價值를 지니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敎父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⁶³⁾

셋째로는 칼빈과 스콜라 神學者들과의 關係이다.

칼빈이 스콜라 神學者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認定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⁶⁴⁾ 그는 Anselm이나 Peter the Lombard나 Thomas Aquinas의 著書들을 研究했으며, 聖 Bernard의 글을 많이 引用하였음이 証明되었다. 몽테귀大學 (Montaigu)에서 받은 敎育은 아닌게 아니라 칼빈으로 하여금 唯名論에 接觸하게 하였으며 후란시스칸學派의 代表的인 神學者들 특히 Duns Scotus나 Ockham을 알게 하였다.⁶⁵⁾

이것 때문에 칼빈의 神學을 Scotus의 神學과 比較하는 것을 크게 된다.⁶⁶⁾ 그후 많은 神學者들과 歷史家들은 칼빈主義의 神觀念을 Duns Scotus에게서 그 根源을 더듬어 찾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이 스콜라 神學의 影響을 받았다는 위와 같은 見解는 저들이 칼빈의 思想을 單純으로 왜곡한데서 온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칼빈이 基督敎 綱要에서 敎皇主義 神學者들의 잘못을

63) Ibid., p.125.

64) Ibid., p.126.

65) Ibid., p.127.

66) A.Ritschl과 같은 신학자는 칼빈의 二重예정교리가 唯名論者들로 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F.Wendel:op.cit., p.127
참조

다음과 같은 말로 明白히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우리는 하나님의 絶對的인 權能을 말하는 敎會主義 神學者들의 꿈을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의 어둡한 神觀은 價神的이며, 嫌惡의 対象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自身에 對하여 讚美하기 때문에 讚美없는 하나님을 想像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意는 모든 權에서 純潔할 뿐만 아니라 最高 完全한 規範이 되시며 모든 讚의 讚이 되시는 것이다.」⁶⁸⁾

이 말은 칼빈이 Duns Scotus의 영향을 받았다는 假說을 뒤집어 주는 明白한 証據가 된다.⁶⁹⁾

넷째로 칼빈 當時의 思想的 源泉을 찾는다면 自然히 人文主義者들과 改革者들에게 特殊한 位置를 둘 수 밖에 없다.⁷⁰⁾ 칼빈이 回心後에도 人文主義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며, 에라스무스(Erasmus)의 영향은 매우 깊어서 칼빈의 著作을 읽을 때 Erasmus의 方法과 表態를 자주 생각나게 한다.⁷¹⁾

그리고 改革者들 가운데 칼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는가 했을 때 칼빈은 언제나 루터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던졌다는 事實을 칼빈의 「Treatise on Free Will agains

67) F.Wendel: op.cit., p.127.

6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CC; XXI (©1960, W.L. Jenki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of France) 이하는 Inst.로 약해서 쓴다. Inst. III, xxiii.②

69) F.Wendel: op.cit., p.127.

70) Ibid., pp.129-130.

71) Ibid., p.130.

Pighius”(1543)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⁷²⁾

루터의 영향은 形式的으로 벌써 1536年 기독교강요 初版의 構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가 루터의 小要問答의 順序에 따라 構成되었다는 點이다. 그러나 根本的으로는 강요가 루터의 思想的 影響을 받은 흔적을 자주 보여준다.⁷³⁾ 그러나 칼빈이 루터의 影響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루터의 思想을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1536年 以後 칼빈은 聖禮觀에 대한 문제로 루터와 絶別하고 말았다. 그後 異同은 더욱 두드러져 聖禮문제, 豫定敎理, 그리스도, 聖禮觀 등에서 鮮著한 不一致點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差異點은 루터의 그리스도 中心的 神學(Christocentric theology)과 칼빈의 하나님 中心的 立場(theocentric position)에서 그 문제의 해석을 찾을 수 있겠다.⁷⁴⁾

칼빈의 思想的 源泉을 찾을 때, 1536年부터 Melanchton이 그 源泉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1521年과 1535年에 出版된 Melanchton의 Loci Communes(Common Places)를 칼빈이 알고 있었다.⁷⁵⁾

그러나 칼빈은 가장 중요한 두가지 敎理에서 Melanchton과

72) “우리는 이전과 같이 Luther를 그리스도의 卓越한 사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게 그의 노고와 사역에 의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이 시대에 회복된 것이다” 신복운; op.cit., p.13.

73) F.Wendel; op.cit., p.132.

74) Ibid., p.134.

75) 이책은 Melanchton의 敎의학서로 律法, 信仰, 祈禱, 사랑, 悔改, 그리스도인의 자유등을 다루었다.

헤어져야 할 심각한 차이점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自由意志의 豫定 敎理였다.⁷⁶⁾

한편 칼빈은 Zurich의 改革者 Zwingli와는 거의 類的인 類似點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Zwingli가 福音의 전파와 엄격한 地域的인 愛國心으로 作用된 先入觀을 混同하고 있는데 對하여 칼빈은 理解할수가 없었다. 더욱기 褻禮觀이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Zwingli가 지나치게 철학자들에게 오염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逆說을 좋아한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⁷⁷⁾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대로 Zwingli를 第二類의 神學者라고 1552年1月 Bullinger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지적하고 있다.⁷⁸⁾

칼빈의 神學形成에 있어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Strassburg의 神學者 Martin Bucer의 役割이다.⁷⁹⁾ 그가 1537年 Bucer를 個人的으로 알기 전에는 이미 確信으로 交際한바 있었고 또한 1527년에 出版된 Bucer의 마태福音과 요한福音. 註釋을 읽고 自身の 思想으로 만들기도 하였다.⁸⁰⁾ 이 Bucer의 註釋은 基督敎 經典의 準備的인 研究에 使用되었던 것이 分明하다.⁸¹⁾

1536년에 出版된 Bucer의 上記 福音書 註釋 第3版과 同年의 르다서 註釋의 영향은 1539年과 1541年版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⁸²⁾ 그리고 Bucer와 칼빈은 다같이 淵

76) F.Wendel: op.cit., pp.134-135.

77) Ibid., p.136.

78) 신복운: op.cit., p.14.

79) F.Wendel: op.cit., p.137.

80) Ibid., p.138.

81) Ibid., p.139.

82) Ibid., p.140.

것을 하나님의 世界統治라고 하는 實際的 觀點에서 人間에게는 두 區別된 범주, 곧 被拔者와 遺棄者가 있다고 보고 이 敎理는 學理上 그리스도인의 信仰生活을 강화하는 敎理라고 주장하였다.⁸³⁾ 이 以外에도 여러 面에서 Bucer의 영향은 컸으며 Strassburg의 改革者에게 칼빈은 많은 恩功을 입었음을 承認할 수 없다.⁸⁴⁾ C. 칼빈의 神學을 檢討하기 前에, 答을 얻고 넘어가야 할 末지 問題가 있다. 그것은 무슨 目的 爲문에 칼빈은 基督敎 綱要를 出刊했으며, 끊임없이 改訂을 했어야 했는가?⁸⁵⁾ 이 問題에 對해서 칼빈은 1536年版의 序文에서 「프랑스人에게 드리는 글」로 서 이에 答하고 있다.⁸⁶⁾

「페하시여! 내가 이 책을 처음 쓰기 始作하였을 때에는 후에 페하께 드릴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意圖한 바는 다만 基督敎의 原理들을 약간 기술하여 宗教를 探求하는 人들로 하여금 참된 眞理의 特徵이 무엇인가 함을 배우게 하려는데 있었나이다. 그리고 이 책은 호르 나의 同胞 프랑스 人들을 爲하여 썼아오며, 그들 중에는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者 많사오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知識을 所有한 者

83) Ibid.

84) Ibid., p.144.

85) F.Wendel: op.cit., pp.144-145.

86) 칼빈의 이 헌사는 文學사상 세 卽후의 헌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하나는 De Thou의 프랑스人 서문이요, 둘째는 Casaubon의 Polybius라는 저서의 서문이요, 셋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서문인데 이것이 그 중요성과 유용성에서 이상의 두 서문을 훨씬 능가한다.
p.Schaff; op.cit., p.332. 참조

극히 적은 것을 알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뜻을 든 意
 圖였아오며, 이 사실은 이 冊 自體가 証明하는대로 그 內容이
 單純한 方法과 아무 장식도 없는 文章으로 되어 있나이다.
 그러나 페하의 나라에서 어떤 사악한 꾀들의 그 횡포함이 극
 도에 달하여 이 나라에서는 건전한 教員이 存在의 餘地를 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
 도敎에 대한 나의 知識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며 나의 信仰
 告白을 페하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의 努力은 有用하
 게 바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이 信仰告白을
 通하여 페하에서는 방금 불과 前으로 나라를 소란케 하고 있
 는 그 狂人들에게 狂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教
 員의 性質이 무엇임을 알게 되리라 생각하나이다.⁸⁷⁾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著述의 總要 著述目的이 두 가지로 나
 남을 보게 된다. 첫째는 實際的인 目的이다. 다시 말하면 그
 리스도敎의 教員을 가능한 限 要點問答과 같이 單純하면서도 組織
 的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敎를 探求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理
 解시키려는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6년의 第一版 總要
 는 Latin 語로 되어있어 少數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졌다. 그러
 나 칼빈은 1539년의 第二版 總要 序文에서 이러한 目的을 수정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⁸⁾ 第二版 序文인 「讀者들은 注目하여
 보십시오」라는 것으로 칼빈은 이제는 改革敎員을 간명하게 해석해
 주는데 關心이 없고 聖經을 敎義學的으로 소개하는데 더욱 뜻을

87) Ibid., pp.332-333. F.Wendel: op.cit., p.145.

88) F. Wendel: op.cit., p.146.

두게 되었다. 칼빈은 一般大衆보다는 神學徒들에게 特別한 關心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Melanchton의 1521年 Loci Communes 를 出版할 때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지금 일종의 敎義學 개론을 저술하여 神學敎育의 必要性에 대비함으로 神學徒들의 지침서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⁸⁹⁾

들쭉는 福音信仰의 辯護가 그 目的이었다.⁹⁰⁾ 1535年初 프랑스를 피로 들들였던 有名한 聖敎事件⁹¹⁾으로 因한 迫害- 칼빈이 詩篇註釈 序文에서 明白히 밝힌대로⁹²⁾ 이 박해가 再洗禮派와 煽動者들에게만 가해졌다고 하여 박해의 正當性을 피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칼빈은 이 책을 辯護의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福音主義者들의 죽음이 우리 主님 보시기에 매우 重要的인 事를 밝히려 하였다. 칼빈은 이미 生命을 건 그 英雄的인 信仰을 가지고, 그리고 人間의 伝統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박약해진 그리스도의 순수한 福音을 爲한 불붙는 情熱을 가지고 이 책을 썼던 것이다. 이 결과로 칼빈은 敎義와 倫理를 淸어 有變的인 調和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⁹³⁾

89) Ibid., p.146.

90) P.Schaff: op.cit., p.330.

91) 이 사건은 미사의 남용을 공격한 것으로 그 책보의 제목은 "唯一하신 仲保者시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직접 반대하여 만들어진 교황주의 미사의 그 무섭고 용납할 수 없는 남용에 대하여"였다. 이 책보를 작성한 사람은 Neuchatel 교회의 목사 Antoine Marcourt였으며 1534年 10月 17日 밤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신복운: 기독교 강요: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 배경(II), 신학지남, 178호 (1977. 가을호) p.39.

92) F.Wendel: op.cit., p.145.

93) P.Schaff: op.cit., p.330.

歴史的으로, 이 두가지 目的이 相異하건서도 同時的인 것은 똑같이 有用하였다. 그러나 神學的인 見地에서 볼때, 前者(實際的 目的)가 後者(辯護의 目的)에 비해 훨씬 더 重要하다고 하겠다. 칼빈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칼빈이 辯証的인 部分, 특히 "프랑스 王에게 드리는 글"을 거의 변경없이 거듭되는 版에 그대로 수록한데 反하여, 우리가 아는데로 神學的 無狀에 대하여는 많은 修正을 가하였던 것이다.⁹⁴⁾

事實, 福音敎 綱要는 그 記錄된 動機나 目的에서 만이 아니라 그 內容自體를 볼때, 칼빈 자신의 宗函에는 하나님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闡明하려고 함이 성경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論述하는 神學自體에 對한 關心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음을 본다.⁹⁵⁾

2. 칼빈의 神學

A. 序 : 앞에서 우리는 福音敎 綱要의 歷史, 思想的 源泉 그리고 著作目的에 關해서 알아보았다. 知的이며 靈的인 깊이와 能力을 所有한 26歲의 早熟한 天才의 傑作인 이 綱要는⁹⁶⁾ 物理學에 있어서의 Bacon의 Novum Organum과 Newton의 Principia에 필적되는 神學上 重寔한 位置를 占하는 것이다.⁹⁷⁾

94) F.Wendel: op.cit., p.146.

95) 김정준: 『성서학자르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1965.5), p.35.

96) P.Schaff: op.cit., p.329.

97) William Cunningham: The Reformers and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The Banner of the Truth Trust, 1979, p.295.

칼빈 一生의 力作인 이 綱要는 神學史에 가장 重要한 業績이
 다. 直接 間接으로 神學的 問題에 關해 研究하는 知性人들에게 強
 力하고도 有益된 影響력을 주었으며,⁹⁸⁾ 西歐文明의 源泉이 되었던
 것이다.

이 基督敎 綱要로 말미암아 칼빈은 '唯一한 神學者' (The
 Theologian) 로 稱함을 받기에 充分했던 것이다. 事實
 Augustine 과 Luther 가 獨創的인 思想家로서는 칼빈보다 우수
 할지 모르고 철학에 있어서 Thomas Aquinas 가 칼빈 以上일지 모른
 다. 그러나 組織神學에 있어서는 칼빈을 따를 사람이 없다.⁹⁹⁾
 그러던 이제부터 神學者 칼빈의 神學思想에 關해서 鑿目を 따라서
 檢討하기로 하겠다.

B. 聖經에 關한 敎理: 칼빈은 主張하기를 自己神學의 源泉과
 그 根源은 聖經하나 뿐이며 如何한 어떤것도 自身에게 影響을
 주지 않았다고 強力하게 그 立場을 밝히고 있다.¹⁰⁰⁾ 그래서 칼빈
 은 自身을 가르켜 "제비바敎會의 神들의 敎師"¹⁰¹⁾라고 稱했으며,
 "누구든지 聖經을 사랑하는 참 敎자가 되지 않고서는 바로고 聖
 스러운 敎理의 작은 部分이라도 맛 볼 수 없다"¹⁰²⁾고 宣稱했다.
 事實 칼빈은 다른 宗教改革者들 보다는 한층 더 聖經의 敎자가
 되고 聖經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던 첫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聖經을 주신 하나님 目的을

98) Ibid., p.295.

99) T.H.L.Parker: op.cit., p.49.

100) A. Hunter: op.cit., p.38.

101) 이충성: 칼빈,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71.

102) Inst. I.vi.(2).

성경을 위한 그의 목적

무엇으로 解釋하고 있었는가?

· 人間の 마음이란 弱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依한 도움과 뒷받침이 없는 限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¹⁰³⁾ 그러므로 · 聖經은 마치 鏡力이 어두운 노인이 책을 分明히 읽기 위하여 쓰는 안경 같아서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¹⁰⁴⁾고 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聖經은 人間을 하나님께로 引導하는 案内者로서의 目的을 수행하는 것으로 解釋했던 · 聖經은 하나님을 分明히 보여주는 빛나는 거울¹⁰⁵⁾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에 對한 知識을 人間으로 알도록 해주는 이 聖經은 人間이 알 必要가 있거나 또는 알아서 有益한 것과 알아서는 안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聖經의 學改라고¹⁰⁶⁾ 聖經의 主眼 目的을 한층 具體化시키고 있는데 이 學改를 통하여 · 人間은 하나님을 創造者로서 뿐만 아니라 구속주로까지 알아서 사망에서 生命으로 옮김을 받아야만 한다¹⁰⁷⁾고 했다.

둘째번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떻게 聖經이 記載되었는가 하는 點이다. 이 問題는 聖經의 靈的問題와 直接 關係이 되므로 여기서 이 問題를 약간 다루기로 하겠다. 聖經의 權威에 對한 칼빈의 見解가 17세기의 改革主義 神學者들에 의해서 定立된 完全逐字 逐語의 高等한 教理 (the high doctrine of plenary, verbal inspiration)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主張이 사망에서 살아져 나

103) Ibid., I. vi. ④.

104) Ibid., I. vi. ①.

105) Ibid., I. viii. ⑦.

106) Ibid., III. xxi. ③.

107) Ibid., I. vi. ①.

왔다.¹⁰⁸⁾ 그 反對主張들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칼빈은 聖經이 信仰과 生活, 구원의 敎理와 천국에 關해서는 無誤하나 歷史와 科學에 關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主張했다는 것이다.¹⁰⁹⁾ 그래서 Briggs와 같은 著者は "칼빈의 경우 성경의 無誤함은 오류와 양립한다"고 主張한다.¹¹⁰⁾ 그 결과 칼빈이 聖經의 句語들을 重要視하지 않고 敎理, 즉 영적 原理인 本質的 內容만을 重要視했다는 意見이 나타났다.¹¹¹⁾

Doumergue가 이 意見을 主張한다. 이와같은 異論들에 對하여 이제는 우리의 立場을 밝힐 차례다. Briggs가 主張하는 根拠는 마 27:9, 행 7:14-16, 히 11:21 등에 關한 칼빈의 주석이며¹¹²⁾ Doumergue는 칼빈이 추자영감을 가르친바 없다고 主張하면서 同一한 제목아래 "단어들이 첨가되었거나 삭제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實證들을 引用했는데 그는 칼빈의 에베소 2:5, 히브리 9:1, 디모데전 1:3, 야고보 4:7의 주석등에 異議를 제기했다.¹¹³⁾ 이와같은 심각한 異論에 對한 論議가 있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최근 십 년동안에 이 두 문제와 關聯하여 아주 수준높은 두개의 연구

108)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1978, p. 11.

109) Ibid., p. 19.

110) Ibid., p. 20.

111) Ibid., A. D. R. Polman: "Calvin on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John Calvin-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97-112. p. 97.

112) J. Murray: op. cit., p. 12. 특별히 同書 pp. 12-15 까지 자세히 나와있다.

113) Ibid., pp. 21-22. 同書 pp. 22-24 까지 자세히 나와있다.

論文이 발표되었는데 그 論文의 內容을 간략하게 要約하므로 代身 하고자 한다.

E.A.Dowe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칼빈의 저서들 중에서는 原本聖經의 有誤점을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칼빈에 의하면 聖經은 그것이 '逐字的' 이든 또는 '比喩的' 필 기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結論은 原本에 있어서 無誤한 일련의 文 齣들이 되도록 주어졌다는 점이다. 114)

브다 최근에 발표한 Kenneth S. Kantzer는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칼빈이 엄격한 정통적 추자영감교리를 견지했음을 지지해주는 証據는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칼빈의 주석들을 조금 만이라도 일별해 보면 단번에 누구나 곧 개혁자 칼빈이 얼마나 신중하게 추자적 無誤敎條를 그의 성경주석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115)

聖經靈感 問題에 對하여 칼빈의 말들중 조금 생각이 알게 보이 는 몇 단락을 골라서 그의 敎條이 合理的인 論據를 왜곡시키거나 그러한 지엽적인 말들을 縮減하여 칼빈 思想이 거듭 正確한바 있 는 聖經의 不可侵의 性格 -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혀 人間的인 것이 混雜되지 않은 - 을 進行하는 理論을 재밌게 보게 하는 것은 절망 적인 최후의 수단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수가 없다. 116)

칼빈의 聖經觀에서 세번째로 다룰 問題는 聖經의 權威에 關한 論議다. B B.Warfield는 칼빈의 偉大함이 聖經의 權威를 바로

114) Ibid., p.11.

115) Ibid.

116) Ibid., p.31.

깨달은데 있다고 했다. 117)

칼빈思想의 핵심이 바로 聖經의 權威였다는데 異論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問題로 칼빈은 로마敎會의 상호 權을 이루었는데, 로마敎會도 聖經의 靈感은 認定했으며 또 聖經의 權威도 認定했으나 이 權威 보다는 敎會의 權威를 더 앞세웠던 것이다. 118)

이에 대해 칼빈은 『 聖經에서 聖經中에 先知, 使徒를 그리고 使徒의 후계자들에게 일컬어 주신 權威는 그들 自身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에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職務를 맡겨진 것은 그들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主님의 입을 代身하여 말씀하게 하려 함이다. 119)

로마敎會는 敎會가 聖經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 없다고 하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敎會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聖經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120) 敎會의 目的은 단지 주어진 말씀을 순결하게 保存되어 전파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칼빈에게 있어서 聖經權威의 根本적인 根拠는 무엇이었던가? 오늘날 칼빈 해석자들 가운데 이 問題에 關하여 두가지로 懸念하는 경향이 있다.

117) B B. Warfield: 『Calvin and Bible』,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I. ed., John E. Meeter. Nutl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p. 401-406.

118) 로마교회는 성경의 편찬권과 해석권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었다. Inst. I. vii. ① 참조

119) Inst. IV. viii. ② ; 특히 viii ⑥ - ⑧ 에 논리적 반증이 자세히 쓰여져 있다.

120) Ibid., IV. viii. ③.

첫째는 칼빈은 聖經의 權威의 根柢를 예수 그리스도 自身에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聖經權威를 否認하는 立場이다. 그러므로 逐字靈感教理와는 兩立할 수 없다고 한다.¹²¹⁾

W.Niesel은 주장하기를 칼빈은 聖經을 客觀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同一視하지 않았으며 聖經의 權威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証據하는 데만 있다고 한다.¹²²⁾ "칼빈은 때로는 聖經의 靈感を 말하긴 했으나 聖經을 하나님의 眞理로 同一視하는 意味에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眞理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文字的 靈感論은 聖經우상론으로 기울어지고 말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의 唯一한 眞理일 뿐이다. 聖經은 다만 그 말씀의 証據이다."¹²³⁾ 칼빈도 "그리스도의 眞理를 떠나서는 文字는 죽은 것이요 그의 律法은 죽자를 죽이게 할 뿐이다. 마음에 부딪칠이 없이 다만 귀에만 들릴 뿐이다."¹²⁴⁾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칼빈이 聖經의 客觀的 權威를 認定하지 않는 말로 解讀되어서는 안된다. 無疑한 聖經의 客觀的 權威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權威를 손상시킨다는 우려는 칼빈에게는 없었다.¹²⁵⁾

다음으로 聖經의 權威를 聖經의 內的 証據에만 두는 立場이다. 칼빈은 分明히 聖經權威의 根柢를 論함에 있어서 聖經의 內的 証

121) J.Murray: op.cit., p.37.

122) 김의환: "칼빈의 聖經觀", 신학저널 152호 (1971. 봄호), pp.20-27, p.23.

123) Ibid., p.23.

124) Inst. I. ix, ③.

125) 김의환: op.cit., p.24.

證를 크게 強調했다. 이것뿐 아니라 여러가지 外的 證에도 提示했다. 그러나 聖經의 內證을 "첫째가는 重要한 證"이라고 言及하였다.¹²⁶⁾ "하나님만이 그 自身에 對한 唯一한 證人이 되시며, 同時에 그 證를 믿을만한 充分한 內的 確信을 또 주셨다."¹²⁷⁾ 고 칼빈은 主張한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만이 그 自身の 말씀의 참 證人이기 때문에 聖經의 內的 證에 의하여 確證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對한 確信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先知者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聖經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滲透고 들어와야 한다."¹²⁸⁾ 만일 누가 이 內的 證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알 수 있느냐 묻는다면 칼빈은 이렇게 答覆한다. "聖經은 색깔에 있어서 흑백이나 맛에 있어서 달고 쓴 것을 가리는 것처럼 진리에 對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¹²⁹⁾

이 眞理야말로 "증認할 수 없는 眞理로서 聖經에 의하여 內的으로 가르쳐진 眞理이며 이는 獨自의 信任性 (self-authenticated) 을 가지고 스스로의 證를 同僚하의 理性에 의해 論證이나 論議의 對象이 될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진리로서의 信任性은 오직 聖經의 證에서만 오는 것이다."¹³⁰⁾

以上에서 칼빈에게 있어서의 聖經의 權威는 먼저 그것이 곧

126) 강요 초판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나 1539년 제2판 부터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1559년 결정판에서는 제1권 제 8장에서 자세하게 취급하고 있다.

127) Inst. I. vii. ⑤.

128) Ibid., I. vii. ④.

129) Ibid., I. vii. ②.

130) Ibid., I. vii. 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事實과 다음으로 聖經의 內証으로 말미암아 聖徒들의 마음속에 聖經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것이 두가지를 다 주장한 것이다.¹³¹⁾ 結論적으로 칼빈에게 있어서 聖經의 最終的 根柢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本來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聖經의 獨自的 權威 (self-authenticating) 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C. 하나님에 關한 敎理: 칼빈神學의 全體系는 하나님에 關한 敎理위에 세워져 있다.¹³²⁾

칼빈은 綱要 初卷 序頭에서부터 이 問題에 關해 論하고 있다. 이 주제에 對한 칼빈의 思想이 定立된 것은 1539年 綱要 第二版이 出版된 때부터이다.¹³³⁾ 칼빈은 公義의 하나님 思想으로 부터 始作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神學은 하나님 中心的이다.¹³⁴⁾ 칼빈은 온 마음과 精神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思想에 압도되었다. 칼빈의 이 敎理는 온 그리스도 敎會의 敎理, 특히 改革派의 基本 思想이 된 것이다.

그러면 우선 綱要全卷에 있어서 하나님에 關한 敎理가 어떻게 取扱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칼빈이 綱要에서 企圖한 것이 두가지 있다. 卽 첫째는 祝福말을 永久不滅의 記號로서 하나님께 對한 知識과 둘째로 그 하나님께 對

131) 김의환: op.cit., p.26.

132) A.Hunter: op.cit., p.49.

133) B.B.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Grand Rapids: Baker, 1974. p.29.

134) James Mackinnon: Calvin and Reformation, New York: Russell & Russell Inc., 1962. p.220.

란 知識에 關聯해서 人間에 對한 知識이다.¹³⁵⁾ 칼빈은 이 하나님에 關한 知識을 認識하는 源泉을 自然的인 것과 超自然的인 것들로 보았다.¹³⁶⁾ 綱要에 나타난 自然的인 하나님에 關한 認識은 先天的인 것과 그리고 自然과 歷史속에 나타난 一般啓示論이다.¹³⁷⁾

칼빈은 人間은 나면서부터 先天的인 本能으로서 하나님에 關한 知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普遍的이요 지을수 없는 것임을 묘지不動의 事實로 主張했다. 綱要에 主張된 處를 보면 하나님에 關한 知識은 先天的이며¹³⁸⁾ 또한 태어나면서 부터 심령에 새겨져 있으며¹³⁹⁾ 이 知識이 先天的인 것은 人間の 構造自體¹⁴⁰⁾이고 本能的이며¹⁴¹⁾ 生得的이다.¹⁴²⁾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關한 知識이 없을 程度의 야만인은 存在치 않으며¹⁴³⁾ 無神論者中에 참 無神論者는 없으며, 하나님에 對한 공포를 감추려는 努力이 있다.¹⁴⁴⁾ 야만인과 無神論者와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關한 意識存在를 認定하는데 功獻한 者들이며, 人間이 創造의 原狀態에서 罪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証物들이다.¹⁴⁵⁾ 하나님에 關한 認識에서 칼빈이 強調하는 것은 罪意識이다.¹⁴⁶⁾ 이는 人間の 비참한 癡과이며, 이 事實은 人間이 하나님을 不足感과 공포심을 가지고 우러러 보도록 만든

135) Inst. I. i. ①.
 136) J. Mackinnon: op. cit., p. 221.
 137) BB. Warfield; op. cit., p. 31.
 138) Inst. I. iii. ③.
 139) Ibid., I. iv. ④.
 140) Ibid., I. iii. ①.
 141) Ibid., I. iii. ① and I. iv. ②.
 142) Ibid., I. iii. ③.
 143) Ibid., I. iii. ①.
 144) Ibid., I. iv. ②.
 145) BB. Warfield: op. cit., p. 34.
 146) Ibid., p. 36.

다.¹⁴⁷⁾ 그러므로 先天的으로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認識은 단순히 하나님이 存在한다는 確信에 不過한 知識이 아니라 다소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知識이다.¹⁴⁸⁾ 칼빈은 이 하나님에 대한 認識을 一般宗教의 起源과 性質로 說明했다. 그러나 이 先天的 하나님에 대한 知識만으로는 우리의 知.情.慧를 하나님께 向하도록 움직이는 산 하나님에 대한 知識은 되지 못한다.¹⁴⁹⁾ 참된 하나님에 대한 知識은 敬虔心 (piety) 과 分離할 수 없는 觀念이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敬畏와 사랑을 意味한다.¹⁵⁰⁾ 그러므로 참 宗教는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敬畏心과 自發的인 尊敬心과 律法의 命命에 경건히 服從하는 마음으로合一된 믿음으로 構成되는 것이다.¹⁵¹⁾

이와 같은 先天的 하나님에 대한 知識을 人間心靈속에 주신 內的啓示 (ineradicable revelation)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外的으로도 分明하고도 豊穡한 啓示를 주셨다. 自然과 歷史를 통한 一般啓示를 말한다.¹⁵²⁾

人間이 하나님을 모르고 自身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權能과 命命을 모르고 自然과 事件의 過程을 說明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自然啓示의 명료성과 보편성을 強調했다.¹⁵³⁾ 칼빈은 自然啓示의 理論을 發展시켜 創造. 揆理 兩面으로 나누었다. 創造는

147) Ibid.

148) Ibid., p.37.

149) Ibid.

150) Ibid.

151) Ibid., p.38.

152) Ibid., p.39.

153) Ibid.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永遠性を 보게 하리 한편, 聖靈은 하나님의 能力을 통하여 하나님의 父性愛的인 자비와 憐憫을 깨닫게 된다. 이 兩者는 合一하여 하나님의 榮光概念을 構成한다.¹⁵⁴⁾

칼빈은 一般啓示의 客觀的 充足性を 強調한다. 그러나 그것 分別할 人間의 認識能力이 罪로 우둔, 파괴되었음을 지적한다.

宗教의 씨가 心靈속에 뿌려졌으므로 그 씨가 罪로 썩었고 자라지 못한다. 人間心靈속에 켜진 靈的質戀의 불빛은 꺼졌고¹⁵⁵⁾ 따라서 自然啓示를 통해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知識을 얻을 人間의 認識能力은 둔화 또는 상실되었다.¹⁵⁶⁾ 그러므로 우리는 人間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認識이 없는것이 아니라 腐敗했다는 것과 이 腐敗에 對해 人間은 辯明의 餘地가 없다는 事實을 結論할 수 있겠다.¹⁵⁷⁾

一般啓示로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知識의 획득에 失敗한 人間을 爲한 하나님의 超自然的 特別啓示가 있는데 그것은 聖經이다.

「우리는 聖經속에서 世界를 創造한 하나님을 다른 偶像들과 區別해서 배워야 하며 分明히 聖經은 하나님을 創造主라고 辨認케 해 준다」¹⁵⁸⁾ 그러나 이 聖經에서 그 知識을 얻는바에 있어서 無條件하고 얻을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칼빈은 이에 答하기를 「聖經은 聖經의 內的証拠를 통해서 基礎를 가질때 비로소 하나님께 對한 知識을 效果的으로 줄 수 있다」¹⁵⁹⁾ 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聖經이야말로 人間과 하나님과의 交際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54) Ibid., p.40.

155) Inst. I.iv. ④.

156) Inst. I.v. ②.

157) BB. Warfield: op.cit., p.44.

158) Inst. I.viii. ③.

159) Ibid.

주신 특별한 恩寵의 啓示임을 받게 되며 칼빈이 그의 神學理論의 精髄을 簡潔에 達해 示해서 무엇보다도 安穩感을 느끼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屬性을 말하면서 시전 145편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시전은 의호와 하나님의 威嚴과 榮光과 恩惠를 찬송한 노래이다.¹⁶⁰⁾ 칼빈은 여러가지 하나님의 屬性을 들고난 뒤에는 세가지 말로 함축시켜 버렸다. 즉 첫째 하나님은 慈悲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審判者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正義이시다. 이와 같이 慈悲 審判者 正義란 세가지 하나님의 屬性은 代表的인 表現이고 그 속에 真理, 權能, 眞, 善 등의 屬性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⁶¹⁾

칼빈의 하나님에 관한 敎理를 論述함에 있어서 取扱되어야 할 最要한 敎理는 三位一體 敎理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存在에 關해 보다 깊은 內容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三位一體이다.¹⁶²⁾ * 만일 우리가 이러한 事實을 간과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의 無意味하고 공허한 이름만을 남길 뿐이다.¹⁶³⁾ 하나님이 三位라는 말은 하나님의 三位一體 敎理를 完全케 하고자 더하거나 하나님의 存在本體의 眞理를 뜻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만 唯一神 하나님은 三位一體 하나님이라는 말을 強調한 말이다.¹⁶⁴⁾

칼빈에게서 처음으로 이 敎理에 關한 說明은 그의 書問答에서

160) 이 시전구절속에서 의호와 하나님은 仁慈하고 (Clemency), 善하고 (Goodness), 慈悲하고 (Mercy), 義롭고 (Justice) 審判者이고 (Judgement), 眞理 (Truth) 이심을 알 수 있다.

161) Inst. I.x. ②.

162) BB.Warfield: op.cit., p.190.

163) Inst., I.viii. ②.

164) BB.Warfield; op.cit., p.191.

찾을 수 있다.¹⁶⁵⁾ 여기서 特別히 唯一神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聖子됨의 獨特性 등을 主張했다. 칼빈은
 主張하기를 "聖父, 聖子, 聖靈을 믿는 우리의 信仰告白에 아무도
 시비가 없기 爲해서 그것에 關해 아주 말을 적게 함이 必要하다.
 우리가 聖父, 聖子, 聖靈을 부를 때 豈코 三神을 생각하느니 아니고
 絶對的으로 聖經과 敬虔한 經義는 하나님의 本體안에 聖父, 聖子,
 聖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의 知能은 聖자를 認識하
 지 않고서 聖父를 理解할 수 없으며 聖靈을 理解하지 않고서 聖
 父, 聖자를 認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唯一神 하나님을 믿
 게 되니 聖父와 聖靈과 함께 하시는 聖父를 파악하게 된다"

以上的 몇마더의 글에서 三位一體에 關한 칼빈의 分明하고도 단
 순한, 聖經과 基督敎 經義에 適合하는 主張을 보게 된다.¹⁶⁶⁾

結局 칼빈은 三位란 것을 定義하기를 하나님안에 세가지 實在
 (hypostasis)가 있는데 이는 Latin語로 品格(person)이
 라해도 좋다. 또는 品格이라는 말 보다는 現存 또는 臨在
 (subsistence)란 말로도 좋다."¹⁶⁷⁾ 라고 했다.¹⁶⁸⁾ 칼빈은 이
 敎理를 한걸음 더 나아가 說明하기를 "聖經은 하나님을 表現하는
 데 있어서 한 하나님은 세 實在의 統一體이며, 그 세 實在가 統
 一되므로써 한 品格이 成立되어 비로소 三位一體가 된다고 가르쳐

165) 1536년 9월 5일 Geneva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認理問答書」(Confession of Faith)이다.

166) BB. Warfield: op.cit., p.202.

167) Inst. I.xiii. ②.

168) 「person」(ὁπρόσωπον)이란 용어를 히 1:3에서 찾아
 서 설명하고 있다. BB.Warfield: op.cit., p.212. 참조

주었다 * 고 하였다.¹⁶⁹⁾ * 이것이 正直히 告白될때 우리는 다른 무슨 말로서 더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¹⁷⁰⁾

그러던 聖子와 聖靈의 神性에 關한 主張을 알아 보기로 하자. 勿論 이에 對한 例證은 新. 舊約 여러 곳에서 찾아 提示했지만 칼빈은 特別히 約 4:5 과 마 28:19 과 關聯시켜서 그 敎理를 闡明 시킨다. 이곳의 証文은 “보다 확실한” 三位一體의 証文이다. 즉 聖父. 聖子. 聖靈은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本體안에 三人格이 存在하며, 하나님은 한분 以上이 아니다. 그러므로써 말씀이신 聖子와 聖靈의 位格은 하나님 自身인 것이다. 그러나 聖子와 聖靈의 區別 (distinction) 이 되지 分割 (division) 되지 않는다.¹⁷¹⁾

칼빈은 三位格의 區別된 特性과 役割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聖父 (Father) …… 行爲의 原理原則이다. 모든 事物의 源泉이며 根源이 된다. 聖子 (Son) …… 모든 行爲의 發源이 되며 계획과 배열의 中心이 된다. 聖靈 (Spirit) …… 行爲의 權能과 效力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⁷²⁾

칼빈의 三位一體 概念의 특징은 單純性 (simplification), 純粹性 (clarification), 同等性 (equatization) 이다.¹⁷³⁾

칼빈이 三位一體 敎理에서 主要하게 갖고 있었던 關心 가운데 또 하나의 것은 位格들의 共存性 문제에 칼빈은 三位一體의 傳統的

169) Inst. I.xiii. ⑤.

170) Ibid.

171) BB.Warfield: op.cit., p.228.

172) Inst. I.xiii. ⑤.

173) BB.Warfield: op.cit., p.230.

概念인 從屬主義 (subordinationism)에서 떠났다. 特別히 Logos 基督論에서 보다 分明하게 聖子の "自存" (self-existence, & αὐτόθεος) 을 主張했다. 174)

結論적으로 칼빈의 三位一體는 첫째 그리스도의 完全한 神性으로서의 自存性, 둘째 共在性의 強調, 셋째 한분 하나님안에 三人格을 주장함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175)

D. 人間에 關한 敎理: 創造主로서의 하나님에 關한 知識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關한 知識을 要求한다고 하는데 이에 關한 根本的인 事實은 原罪에 關한 敎理때문인 것이다. 176)

칼빈이 생각한 人間觀은 세속적인 人間觀과는 判異했다. 그가 人間에 關한 論함에 있어서 強調한 點은 언제나 하나님에 關한 知識으로 부터 始作했다는 事實이다. 다른 말로하면 하나님의 主權에 두었다는 것이다. 177)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關한 知識과 人間의 關한 知識을 論하면서 人間은 누구를 莫論하고 自己가 살면서 움직이는 生계속에서 (행 17:28) 하나님의 계획에 順從함이 없이는 人間 自身을 바로 識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主張¹⁷⁸⁾ 하면서 人間의 存在가 人間 自身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事實을 認識함이 必要하다고 한

174) Ibid., p.234: 그리스도가 自存하신다는데 도움이 되는 성구로 사 6:1, 요 12:41, 사 8:14, 롬 14:11, 시 102:25, 97:7, 히 1:6, 10, 사 44:6, 렬 10:11. Warfield, op.cit., p.242 참조.

175) Ibid., p.243.

176) A.Dakin: Calvinism,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0, p.27.

177) 김득룡: 칼빈의 국회신학연구, 목회신학원, p.9.

178) Inst. I. i. ④.

것이다. 179) 一層 더 分明하게 그는 말하기를 “人間은 第一次的으로 하나님과 直接的인 對面을 통해 自身을 바로 바라보지 않는 限, 自己自身의 分明한 知識에 到達할 수가 尙코 없다”고 하였다. 180)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自身을 顯現하시기 까지는 우리 人間들 自身이 우리를 바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칼빈의 人間觀이 첫째는 人間の 참된 知識은 하나님에 關한 知識에 依存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人間の 實存 自體가 純的으로 하나님께 依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181)

이와같은 認識論的 問題가 確實하게 人間存在論의 問題까지 되는 것이다. 182) 專一에 있어서 人間은 人間이므로, 人間の 領域을 넘어서 人間の 限界線을 파괴한다면, 人間の 本質을 상실하게 되므로 人間이 하나님과의 關係를 正當하게 維持하는 것은 무엇보다 重要한 것이다. 183)

이런 論證을 통해서 볼때, 칼빈의 人間論은 唯一神의 神觀定立에 그 源泉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와같이 칼빈이 主張한 人間論의 神學的 배경을 가지고 그의 人間에 關한 敎理를 檢討하여 보기로 하겠다.

칼빈은 人間에 關한 知識은 二重的 稱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첫째가 人間이 처음 創造받았을때에 어떤 狀態에 있었던가 하는 知識과 둘째는 始祖 아담의 타락 以後 人間이 어떤 狀態에

179) Ibid.

180) Inst. I.i. ②.

181) 김득룡: op.cit., p.11.

182) Ibid.

183) Inst. I.iii. ①.

서 始作되었는가에 對한 知識이라고 했다.¹⁸⁴⁾

먼저 칼빈은 最初로 지음을 받았을 때의 人間の 狀態를 하나님의 形象 (Imago Dei) 으로 說明하고 있다. "하나님의 形象은 靈的인 것"¹⁸⁵⁾ 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人間の 性質은 모든 種類의 動物가운데서 기록한 것이라는 原則을 固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⁶⁾ 따라서 이 말은 아담의 知性이 明確하고 感情이 理性에 服從하고 그의 모든 感性이 잘 調節되고 自己가 가진 모든 훌륭한 것은 造物主가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던 그때에 아담에게 주어진 完全性を 意味하는 것이다.¹⁸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形象은 처음에 精神의 光明, 心情의 正直 그리고 各 部分의 健全함을 通하여 나타났다"고 結論했다.

또 그는 創世紀를 註釋하면서 하나님의 形象의 高貴함을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人間이 그의 造物主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事實"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自身의 榮光을 人間에게 새기심으로 말하자면 人間을 하나님의 智慧와 公義의 살아있는 形象으로 만드셨다고 하였다.¹⁸⁸⁾ 말하자면 하나님의 形象은 人間이 그의 造物主에 對한 唯一한 반영이며, 이것은 力動的 關係의 概念이지 死코 情的 推想的인 概念은 아니다.¹⁹⁰⁾

그러나 이 하나님의 形象이 人間の 始祖 아담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았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이 타락은 하나님께

184) Ibid., I.xv. ①.

185) Ibid., I.xv. ③.

186) Ibid.

187) Ibid.

188) Inst. I.xv. ④.

189) Comm. on Gen. 5:11.

190) 김득룡: op.cit., p.37.

대한 적극적인 反逆이며, 不純從의 結果이며, 이는 不信仰으로 부터
 연유된 것이다.¹⁹¹⁾ 그러면 이와같은 타락以後 人間의 狀態는 어떠
 했는가? 人間이 從的, 橫的으로 完全腐敗 타락하고 말았다. 칼빈
 은 人間의 타락으로 因한 罪人된 人間의 모습을 論함에 있어서
 심히도 가혹한 表現을 서슴치 않고 있다. * 人間은 天性 타락되
 어 있으므로 모든 人類를 集團的으로 그리고 個人的으로 이와같은
 어리석은 미치광이로까지 서둘러 놓았으므로 聖靈께서는 드디어 무
 서운 저주를 천둥처럼 내리갈진 것이다.¹⁹²⁾ * 人間은 지옥의 저주
 를 받도록 태어났다.¹⁹³⁾ 고 宣稱하신 것이다.

이같은 타락은 아담의 범죄인 原罪 (Original sin)로 부터
 생겨난 것이다. 칼빈은 原罪를 다음과 같이 定義했다. * 人間本
 性的 遺傳的 타락 및 부패를 말하는 것인데 靈魂의 모든 部分에
 미쳐있다. 그것은 첫째 人間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노아래 놓게
 하며, 다음으로 聖經이 「肉身의 일」 (갈 5:19) 이라고 말하는 것
 들을 하도록 만든다.¹⁹⁴⁾

* 아담이 羲의 源泉을 버리고 난 後 靈魂의 모든 部分은 罪에
 依하여 占領當하게 되었다.¹⁹⁵⁾ 고 하면서 * 여기서 나는 간단히
 人間이 마치 홍수에 依하여 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部分도
 罪로 들들지 않은 곳은 없을 정도로 아주 압도되어 있으며 또
 그런 때문에 그로 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모두 다 罪라는 것을

191) J.Mackinnon: op.cit., p.231.

192) Inst. I.xi.④.

193) Ibid., II.xvi.③.

194) Ibid., II.i.⑧.

195) Ibid., II.i.⑨.

를 및 하고자 한다. 바울이 말한대로 肉의 一切 感情 혹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롬 8 : 7) 그러므로 죽음인 것이다. (롬 8 : 6) 그리고¹⁹⁶⁾ 칼빈은 原罪로 困한 그 오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이 아주 심각함을 力說했다. 그러면서 이 原罪의 遺傳性을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人間은 모두 不潔한 세로 부터 傳承되었으며 世上에 태어날때 罪의 病毒을 지니고 나오는 것이다. 야니 人間은 햇빛을 보기 前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不潔하고 오염된 罪人들인 것이다」¹⁹⁷⁾ 칼빈의 이 主張은 Augustine의 主張¹⁹⁸⁾을 再確認한 것이다. 그러나 Augustine 當時 Pelagius는 原罪의 遺傳性을 否認하고 原罪의 「模倣」을 主張했다.¹⁹⁹⁾ 칼빈은 이 論争에 結論하기를 「허물은 本性으로 부터 오는 것이고 聖化는 超自然的 恩敵」라고 했다.²⁰⁰⁾

이와같이 「原罪가 從的으로 母胎로 부터인 것과 같이 또한 이 罪가 橫的으로 全人類에게 미치고 있다고」 칼빈은 力說하는데 「아담은 하늘과 땅의 全 自然秩序를 당쳐 놓았으니 그의 반역으로 그의 후손 全體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고 하면서 「人間の 허물 때문에 저주가 上, 中, 下 모든 世界에 번졌으니 그것이 후손전체에 미쳤다」²⁰¹⁾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았던 智慧, 美德, 義, 眞理, 거룩함 등과

196) Ibid.

197) Ibid., II.i.⑤.

198) 유죄한 불신자이든 죄사함을 받은 신자이든지 태어날 때는 죄없는 상태가 아니고 죄있는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니 그 이유는 그들이 부패한 본성으로 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Inst. II.i. ⑦ 참조

199) Inst. II.i.⑤.

200) Ibid., II.i.⑨.

201) Ibid., II.i.⑤.

같은 祝福의 장식품을 除去當하고 그 代身 악질, 전염병, 맹목, 허약, 허영, 불순, 불의등 나쁜 것으로 장식하는 罰을 자기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에 까지 이 비참한 惡의 함정에 빠뜨리고 만것이다. 202) 그래서 칼빈은 "아담은 자신이 滅亡하면서 우리까지 당쳐 놓았다"고 했다. 203) "따라서 바울이 人間 모두가 「本質上 罪의 子女」(엡 2:3)라고 한 말은 人間 모두가 母胎로부터 이미 저주받지 않고 있다면 쓸수 없는 말이라고" 한 것이다. 204)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論議해야 할 問題가 있다. 卽 人間이 罪的으로 타락했다면 人間이 本來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진 自由意志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의 以前 學者들은 대개 두가지 解答을 내렸다. Pelagius나 一部 로마敎會 神學者 그리고 루터와 크게 論爭했던 Erasmus는 肯定的인 解答을 내린 데 反해 Augustine이나 Luther는 否定的인 見解를 가졌다. 그래서 前者는 人間의 自由意志를 肯定하기 때문에 自然히 功勞思想이 다르게 되었으나 後者는 奴隸意志를 主張했기 때문에 信仰만 (sola fide)을 主張하게 되었다. 勿論 칼빈도 Augustine이나 Luther의 見解와 같다. 205)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칼빈은 人間의 罪的 타락을 強調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되어 있으므로 사악한 것 외에 아무것도 의욕할 수가

202) Ibid.

203) Ibid., II.i. ⑥.

204) Ibid.

205) 이충성 : op.cit., p.118.

없다는 것이다. *人間은 罪의 노예가 되어 있으므로 自己自身の 본성으로써는 善을 向하여 努力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苦痛을 가질수도 없다.²⁰⁶⁾ Augustine은 人間の 意志를 말(馬)에 比較한 일이 있다. 또한 그 말의 騎手로서 하나님과 마귀를 比較했다. 하나님이 타시면 잘 調節해서 바른 길을 갈 것이나 만약 마귀가 탄다면 어리석게 돌아서 결국에는 절벽에 부딪치고 낭떠러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²⁰⁷⁾ 이 말을 論的으로 지지하면서 칼빈은 *은총의 도움을 받지 않는 限 사람은 善行을 爲한 自由意志는 所有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²⁰⁸⁾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2 권 제 5 장에서 自由意志를 主張하는 여러 학설을 반박하면서 自由意志를 부르짖는 者들에게 對하여 다음과 같이 結論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人間은 사악하고 비틀어지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간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그러볼수도 없다 또한 그의 마음은 罪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毒기에 차 있으므로 부패와 남루한것 외에는 아무것도 肅할수가 없다. 만약 人間이 때때로 善을 보어준다면 그들의 마음은 加식과 기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靈魂은 內的으로 사악의 노예가 되어 있다.²⁰⁹⁾ 고 결론을 내렸다.

206) Inst. II. iv. ①.

207) Ibid.

208) Ibid., II. ii. ④.

209) Ibid., II. v. 19.

E. 그리스도에 관한 敎訓

人間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는 聖經을 통해서이다. 同時に 人間이 自身에 關해서 참된 知識을 가질수 있음도 聖經이란 거울을 통해서이다.²¹⁰⁾ 本來 人間은 하나 님의 形象을 따라 創造되었으나 하나님을 不純從하여 타락 했음을 聖經은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人間 은 모든것이 전율할 만큼 보기좋은 不具가 되고 말았다.²¹¹⁾

이와 같은 原罪로 因한 타락의 結果는 구원이라는 眞實성을 必 要케 하였다.²¹²⁾ 타락後 仲保者없이는 하나님에 關한 知識은 人間을 구원하기에 아무 所用이 없게 되고 말았다.²¹³⁾ 眞實로 하나님께서 仲保者없이는 人間을 사랑하실수 없다.²¹⁴⁾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必要性을 칼빈은 前提로 하고 있다.²¹⁵⁾ 칼빈의 이 前提는 聖經을 따른 것이다.²¹⁶⁾

그러면 우리는 세가지 主要한 問題에 接하게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仲保者적인 것이 어떤 方法으로 알려지는가? 칼빈의 여기에 對한 簡單한 答은 律法과 福音, 즉 聖經을 통해서 라고 한다.

둘째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이 問題에 關해 믿음에 對한 論議가 있게 된다.

210) F.Wendel: op.cit., p.185.

211) Inst. I.xv. ④.

212) A.Dakin: op.cit., p.40.

213) Inst. II.vi. ①.

214) Ibid., II.vi. ②.

215) A.Dakin: op.cit., p.40.

216) Ibid.

첫째는 이와같은 하나님과 人間과의 交際를 維持하는 方法은 무엇인가? 칼빈은 敎會와 聖禮에 關한 取扱으로 이 問題에 結論하고 있다.²¹⁷⁾

上記의 問題들을 綱要에서 찾아 說明하고자 한다.

우리는 旧約에서 그리스도를 보게된다. 모세에 依한 宗教의 全體制는 各樣의 方法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었다. 選拔받은 民族으로써 確固한 所望을 갖도록 함이 그 目的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旧約의 全內容이다.²¹⁸⁾ 그러므로 律法의 完成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旧約의 律法은 人間에게 完全한 義를 嚮求하며, 永生의 구원은 完全한 順從 以外에는 決코 없음을 嚮求한다.²¹⁹⁾

그러나 이 約束下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完全順從이란 人間으로서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人間을 희롱하시는 것인가? 決코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 約束은 福音으로 말미암아 實現된 것이다. 그러므로 律法의 目的은 이 福音을 實現시키기 爲한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引導하는 導線인 것이다. (갈 3:24)²²⁰⁾

律法은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義를 보게 한다.

自然히 이 하나님의 義앞에 人間の 不義, 悞解, 不義, 不義, 不義는 나타나는 것이다.²²¹⁾ 그러므로 律法은 罪를 깨닫도록 해준다.

두번째 律法의 役割은 外的 行動을 제어토록 함에 있다. 이와

217) Ibid., p.41.

218) Ibid.

219) Inst. II.vii.③.

220) A.Dakin: op.cit., p.42.

221) Inst. II.vii.⑦.

같이 「강요된 義」 (extorted righteousness) 는 健全한 社會에 必要한 것이다. 222)

셋째로 律法은 靈魂이 이미 信者들의 마음속에 從事하고 있음을 敎訓하고 있다. 「律法은 그들이 등경하는 主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철저하게 익히기며 그것들을 남독하여 確信케 하는데 最善의 기구가 된다. 223) 그리하여 律法은 肉에 對하여 게으르고 머뭇거리는 나귀를 일깨워 일하도록 하는 채찍과도 같다. 224)

칼빈은 이러한 理由에서 律法의 重要性을 力說했던 것이다. 人間이 올바른 信仰生活을 爲하여서는 「義의 完全한 樣式」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25)

이 律法의 本質은 둘로 나눌수 있는데 하나는 威威로우신 하나님께 對한 人間の 義務과 다른 하나는 우리 이웃에 對한 義務이다. 如何든 律法의 結論은 人間の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 對한 넘쳐나는 사랑인 것이다. 226) 이것이 바로 基督教倫理의 本質인 것이다. 227)

그러면 人間이, 律法에서 提示한바 義의 標準을 達成하는 方法은 무엇이겠는가? 또한 不義한 人間이 어떻게 하나님앞에 설 수 있겠는가?

처음은 하나님 自身이 提示하여 주신 仲保者 예수 그리스도이신

222) Ibid., II.vii. 10.

223) Ibid., II.vii. 12.

224) Ibid.

225) Ibid., II.vii. 13.

226) Ibid., II.viii. 51.

227) A. Dakin: op.cit., p.46.

것이다.²²⁸⁾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仲保者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어야 한다.²²⁹⁾ 고 했으며, 그 理由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순한 또는 絶對的 必要가 아니라 하나님의 必要²³⁰⁾ 라고 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遺傳的으로 道德的 腐敗를 계승한 人間은 罪의 完全한 노예이며, 自力으로서는 이 罪惡에서 벗어날 수 없는 存在이다.²³¹⁾ 그런고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immanuel) 이 되어 神性和 人性이 一致 結合되지 않으면 안된다.²³²⁾ * 仲保者가 遂行할 任務는 人間을 하나님의 사랑에로 회복시키고 人間の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地獄의 아들을 天國의 相續者로 하는 것이다.²³³⁾

이와같은 일은 하나님인 同時에 人間된 출가 아니던 行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仲保者는 참 人間으로써 나타나서 하나님 公義의 滿足의 代價로서 生命을 버리고 우리가 범한 罪의 罰을 받았다. 그는 神性和 人性을 自身에 있어서 統一하여 人間으로서는 罪의 罰을, 하나님으로서는 罪에 對한 勝利를 獲得하였다.²³⁴⁾

이와 같이 칼빈에 依하면 하나님과의 화속에 있어서 仲保者인 예수는 그 自身은 罪가 없으되 人類의 罪를 代身하여 人類가 받아야 할 罰을 받았다는 것이다. 仲保者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人間の 罪에 對한 하나님의 刑罰이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事業이 神性和 人性을 同時에 가진 者만이

228) Ibid., p.47.

229) Inst. II.xii, ①.

230) Ibid.

231) Ibid., II.i. ⑥.

232) Ibid., II.xii. ①.

233) Ibid., II.xii. ②.

234) Ibid., II.xii. ③.

完成할 수 있다고 結論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神性と 人性을 同時에 가진 仲保者로서의 그리스도는 先知者, 또 그리고 祭司長으로서의 職務를 遂行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 메시아職에 關한 것이다.²³⁵⁾

그리스도에 關한 三重의 職務 (The threefold office)에 對해 決定的인 教理는 제일 먼저 提示한 學者가 바로 칼빈이었다.²³⁶⁾

先知者로서 그리스도는 旧約 先知者들로 부터 알려진 하나님의 恩惠에 關한 啓示를 完成한 것이며 그들의 預言을 成就한 것이다.²³⁷⁾ 그리스도의 福풀에 지나쳐 넘어 갈 수 없는데 그 理由は 그 福을에 모든 智慧와 知識의 寶庫가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²³⁸⁾

또으로서 그리스도는 敎會의 영원한 支配者이신 同時에 應許자인 것이다.²³⁹⁾ 그러므로서 다윗에게 約束하신바 旧約의 約束을 成就한 것이다. 이 旧約에 王國이 지금의 敎會로서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²⁴⁰⁾ 그러므로서 마귀와 世上과 肉에 關한 모든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子女들이 승리를 얻도록 役務하시며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들게 하며, 그리스도의 王權을 認識토록 함이다.²⁴¹⁾

祭司長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自身이 犧牲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自身이 犧牲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自身の 죽으심으로 罪에 對한 唯一한 滿足을 이루셨으며, 仲保의 간구하심으로

235) A.Dakin: op.cit., p.48.

236) Ibid., p.49.

237) J.Mackinnon: op.cit., p.238.

238) Ibid.

239) A.Dakin: op.cit., p.49.

240) Ibid.

241) J.Mackinnon: op.cit., p.238.

지음도 祭司長의 職務를 繼續하고 계신 것이다.²⁴²⁾ 이 문제는 贖
 罪에 關한 教理를 論하게 한다.²⁴³⁾ 改革者 칼빈은 主張하기를 그
 리스도의 人間을 爲한 禍福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人間은 원수된
 狀態 그대로 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聖經에서 証明하고 있다.
 그 理由は 두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人間自身의 狀態를 돌아보는
 것²⁴⁴⁾ 과 다른 하나는 完全히 慈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不義한
 人間을 사랑하실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다는 것.²⁴⁵⁾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人間에 對한 義를 어떻게 代身할 수 있겠는가 할때
 , 그리스도의 全폭적인 完全順從 (by the whole course of
 his obedience)²⁴⁶⁾ 이라고 칼빈은 對答한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인 것이다.²⁴⁷⁾ 치욕의 상징인 十字架가 승리의 개선
 마차로 바뀐 것이다.²⁴⁸⁾ 그리스도께서는 犧牲이 되시고 그의 피는
 쏟아졌지만, 바로 그 피가 우리 人間을 爲한 禍福이 되고, 우리
 人間の 더러움을 씻는 물두멍 역할을 한 것이다.²⁴⁹⁾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 - 사도신경에는 있으나 聖經에는 없
 는 - 은 아주 重要的 眞理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
 이 分明하게 해석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充分하게
 느끼신 것이라고 한 것이다.²⁵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理解

242) Ibid.

243) A.Dakin: op.cit., p.50.

244) Inst. II. xvi. ②.

245) Ibid., II. xvi. ③.

246) Ibid., II. xvi. ⑤.

247) Ibid., II. xvi. ⑥.

248) Ibid.

249) Ibid.

250) A.Dakin: op.cit., pp.52-53.

할 수 없는 공물을 意味하되, 그리스도가 人間에게 敎訓하시기 爲
 해 人間을 구원키 위한 代價로서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肉身뿐 아
 니라 自力 구원의 不可能한 人間을 爲한 그리스도의 忍耐를 지시
 함이다.²⁵¹⁾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격노하신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고 注意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充分히 認識하고 계셨다고 論한다.²⁵²⁾

다음은 復活이다. 復活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征服者로 나타났고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復活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確證을 받게 된 것이다. 實로 復活事件은 하나님의 主權的 事件
 이었다.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爲하여 내어쫓이 되고 또
 한 우리를 贖음의 爲하여 살아나셨다」(롬 4:25) 라고 証
 明한다. 卽 罪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除去되고 義는 그 復活
 에 依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實로 우리 人間의 구원은
 實은 그의 죽음에서 實은 그의 復活에 依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敎조가 되심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依한 것임을 顯明은
 反復하여 主張하고 있다. (롬 1:4, 벵전 1:21, 고후 13:4, 빌 2:10)²⁵³⁾

그리스도의 昇天하심은 그리스도의 支配와 統治가 始作됨을 意
 味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榮光과 能力은 그의 復活에서 비로
 소 나타났고 그의 昇天은 그의 支配의 始作이라」고 하였다.²⁵⁴⁾
 칼빈은 昇天의 意義를 論하여 * 昇天에 의하여 信仰은 많은 利를
 을 얻는다. 제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閉鎖된 天國에의 길이

251) Inst. II.xvi. 10.
 252) Ibid., II.xvi. 11.
 253) Ibid., II.xvi. 12.
 254) Ibid., II.xvi. 13.

다시 열리었다" ²⁵⁵⁾ 고 말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昇天은 우리들이 天國에 들어갈 수 있다는 事實을 保證하는 것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再臨하실 것이다. 審判을 爲한 보좌가 作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王國이 實現될 것이다. ²⁵⁶⁾

使徒信經에 잘 要約된 人間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理解될 수 있으며 成就된 것이다. ²⁵⁷⁾

F. 教會에 關한 教理

福音 안에서 信仰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人間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人間은 영원한 祝福에 參與하는 구원의 同參者가 된 것이다. ²⁵⁸⁾ 그러나 人間의 無知와 罪惡으로 外的 도움의 必要가 생겼기 때문에 ²⁵⁹⁾ 하나님께서는 人間의 服從을 체휨하시고자 그러한 도움手段을 許諾하셨으며 福音의 효과적인 전파를 保障하신 것이다. 그래서 教會의 存在는 信仰이 人間 속에서 잉태되도록 하여 또 그 信仰이 成長하도록 고무시켜 주는데 있다. ²⁶⁰⁾

우리는 여기서 教會에 關한 보다 깊은 論議에 들어가기 前에 가장 重要的 基本된 質問으로부터 始作하여야만 할 것이다.

「教會의 定義」 即 「教會란 무엇인가?」 「地上教會가 指向하는 目的은 무엇인가?」 그리고 「칼빈의 教會에 關한 見解에 어떤 不합理한 點이 없는가?」

255) Ibid., II.xvi. ⑬.

256) Ibid., II.xvi. ⑭.

257) A.Dakin: op.cit., p.54.

258) Ibid., op.cit., p.89.

259) Inst. IV.i. ①.

260) A.Dakin: op.cit., p.89.

칼빈은 敎會의 必要性和 機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人間은 無知하고 나태한데다가 변덕스럽기까지한 屬性이 있는 故로 人間의 다음에 信仰이 생겨난 後, 그 信仰이 점차 鞏固해지는때에 外部로부터 도움이 必要하다. 이러한 人間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欠點을 補強할 수 있도록 우리 人間을 도와주셨다. 또한 福音이 널리 전파되도록 이 恩寵을 敎會에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엢 4:11) 그들의 일을 통하여 自己百姓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權威를 부여하셨다. 오컨데 하나님께서는 信仰의 單一性和 올바른 秩序維持에 진력하신 것이다. 그 예로 그는 「聖禮」를 무엇보다도 먼저 制定하셨다. 이 聖禮를 통하여 信仰이 더욱 굳게 되었음을 우리는 實際로 體驗하여 잘 알고 있다.²⁶¹⁾ 그리고 그는 또 쓰기를 *하나님께서서는 敎會의 품안으로 당신의 子女들을 불러도야 敎會의 聖務로서 어린 信者들을 양육하시며 또한 그들이 成熟한 信者가 되어 信仰의 目標에 到達할때까지는 母性愛와 같은 愛로 그들을 기꺼이 引導하시기 때문에 * 敎會가 必要하다고 했다.²⁶²⁾

以上에서 우리는 칼빈이 갖는 敎會의 基本概念을 찾게 된다.

칼빈의 敎會觀에 있어서의 特色은 하나님의 秘密한 豫定과 內的召命에 있다.²⁶³⁾ 敎會는 選拔된 모든 者들로서의 敎會이며 그리스도를

261) Inst. IV. i. ①.

262) Ibid.

263) J. Mackinnon: op. cit., p. 251.

머리르 한 生存한 또는 이미 죽은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百姓들이 도인 것으로 敎會를 칼빈은 보았다. 『우리는 敎會를 믿기를 우리 人間에게는 보이지 않는 敎會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라는 事實』²⁶⁴⁾ 과 『敎會는 現在地上에 살고 있는 聖徒뿐 아니라 世上이 始作된 이래 揀함을 받은 者를 全部를 포함한다』고 했다.²⁶⁵⁾ 이것을 不可見敎會라고 부른다.²⁶⁶⁾ 칼빈은 이 不可見敎會에 關한 問題로 Zwingli와 잘라서게 된 것이다.²⁶⁷⁾

만약 可見敎會 밖에 선택받은 많은 信者가 있다면 또한 역시 參된 敎會가 可見敎會밖에 있다는 것이 된다. 칼빈이 強力하게 力說한 바는 敎會의 보이는 外形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組織된 로마敎會를 唯一의 參된 敎會로 보지 않았다.²⁶⁸⁾

그러면 選된 者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敎會에 屬하는 者와 그렇지 않은 者는 누구인가? 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만약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所有한 者가 있다면 그는 선택된 하나님의 子女이며 영원한 나라를 相統받을 者이다. 바로 믿음인 信仰으로 敎會의 一員인 與否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選된가 유기웠는가와 與否를 区分하는 일은 하나님의 獨占的 使役인 것이다.²⁶⁹⁾

그래서 칼빈에 依하면 人間의 구원은 모든 선택된 者의 敎會를 通해서 實現이 되며, 우리가 敎會의 信者로서 確實하게 確信할 수

264) Inst. IV.i.⑦.

265) Ibid.

266) J.Mackinnon: op.cit., p.251.

267) Ibid.

268) Inst. IV.iii. ① - ②.

269) 칼빈의 예정과 구원의 확신에 關한 논의는 Inst.IV.xxiv. ③. and I.xvii. ③에 상세히 나와있다.

있는 根拠는 구원을 向하신 하나님의 豫定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했다. 칼빈은 말하기를 *人間이 教會를 믿는것은 우리가 教會의 支體됨을 確信하기 때문이다.....첫째로 教會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存立하는 것이며.....둘째로, 教會는 그리스도의 確固不動 하심에 결부되어 있으며.....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락와 같은 約束들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예루살렘城中에 계시매 杖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시 46:5, cf. 욥 2:32, 욥 17)²⁷⁰⁾

예정된 者들이 不可見教會를 構成하는 反面에 可見教會는 모든 信仰告白者들로 이루어지며 可見教會는 말씀의 전파, 聖禮의 施行과 訓練(教育)의 實效으로 標識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制定하신 制度이지 人間の 產物은 아니다.²⁷¹⁾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 또 聖禮가 그리스도께서 定하신 그대로 執行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教會가 存在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事實이다.²⁷²⁾

綱要 初版에서 칼빈은 不可見教會를 強調했다. 그러나 1539年度版에서는 可見教會에다 力點을 두어 論했으며, 1543年度版에서는 다시 새로운 註와 해석을 달았다. 綱要 第三版인 1543年度版에는 可見教會의 4重使役에 關한 說明을 했으며, 1559年度 決定版에는 第三版을 보다 명확하게 補充 再配置하였다.²⁷³⁾

可見教會에 關한 칼빈의 見解에 있어서 符號은 信者들의 어머니로서의 教會思想이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可見教會에

270) Inst. IV.i.②.

271) F.Wendel: op.cit., p.293.

272) Inst. IV.i.⑨.

273) F.Wendel: op.cit., p.142.

저해 論하러 하기 때문에 敎會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
 으로서 우리가 敎會를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를 胎中에 잉태하여 낳은 후 우리를 젖 먹여 길러
 주었듯이 우리들 肉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마 22:30)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외에 우리가 生命으로 向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²⁷⁴⁾

'어머니'라고 부르는 敎會는 可見敎會이며 敎會의 어머니의 機
 能은 구원에 필요하다.²⁷⁵⁾ 칼빈의 이와같은 敎會觀은 Cyprian이
 이미 한 말이다. "너희가 敎會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너
 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모실수 없다."²⁷⁶⁾ 또한 칼빈은 "
 敎會는 모든 독실한 信者들에게 共通되는 어머니."²⁷⁷⁾ 라고 했다.

물론 우리 人間은 無知하고 나태함으로써 外的 도움이 必要하므로
 可見敎會가 우리 人間속에서 믿음의 確固하도록 役事하시는 것이다.²⁷⁸⁾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과 靈的인 삶의 特別한 証
 據를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cf
 시 106:4-5) 敎會로 부리의 分離는 언제나 멸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²⁷⁹⁾

그러므로 敎會가 不可見, 그리고 可見敎會로 区分됨을 우리는 위
 에서 보았다. 즉 믿음의 主體된 不可見敎會와 經驗의 主體인 可

274) Inst. IV.i. ④.

275) J.Mackinnon: op.cit., p.252.

276) F.Wendel: op.cit., p.294.

277) Comm.on Eph. 4:13.

278) Inst. IV.i.①.

279) Ibid., IV. i.④.

見教會를 檢討한 것이다. 이 말은 두개의 別個로 分離된 教會가 存在한다는 意味가 아니라, 같은 外的 交通內에서의 信者들의 二 部類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不可見教會는 可見教會內의 用에 있는 靈魂들로서, 그러나 確實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아시며,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教會는 모든 선택받은자의 全體²⁸⁰⁾인 同時에 全體으로 그리스도와 交際를 갖고 있는 모든 者들의 全體²⁸¹⁾인 것이다.

그리고 칼빈의 教會觀에서 共同性 (catholicity) 과 普遍性 (universality) 에 關한 問題가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 教會는 「共同的」 또는 「普遍的」 이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自身이 여러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限 여러개의 教會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愛하신 者들은 모두 教會의 머리되신 한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엡 1:22f) 서로서로 연결된 그리고 밀착된 한 몸을 이룬다. (롬 12:2; 고전 10:17; 12:12, 27, 엡 4:16)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 안에서 살며 한 소망, 한 사랑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同一한 永生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한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안에 참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엡 5:30) " ²⁸²⁾ 고 했다.

칼빈은 教會에 關한 後의 解釋에서, 무엇보다도 特히 한나라 한 地域에 局限된 教會에 關해 自身의 教會觀을 개진시켜 나간다.

280) Ibid., IV.i. ②, ⑦.

281) Ibid., IV.i. ③, ⑦.

282) Ibid., IV.i. ②.

그러나 外部 地方教會와 關係는 여기서 除外되고 있으며, 그 反對로 可見教會의 單一性 문제를 論하고 있다. 모든 教會들간에 存在하는 이 單一性 문제는 習慣, 禮式 그리고 組織에 關한 差異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歸屬되는 것이다. 칼빈은 綽號 다른 곳에서 教會의 普遍性에 關해 論하고 있다.

「普遍的 教會」란 나라로 부터 모아진 큰 무리로서 각 곳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의 神聖한 敎理의 眞理 안에서 一致하여 同一한 宗教로 纏매어져 있다. 이러한 普遍的인 教會에는 必要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 방방곡곡에 세워져 각기 다른 教會들이 포함되며 따라서 「教會」라는 名稱과 그 權威를 正當하게 얻고 있는 것이다. 283)

그러므로 單一性에 對한 問題가 칼빈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는 分派에 對하여 도전토록 했다. 그러면서 眞美한 敎理의 모든 部分이 同一한 오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基督敎의 基本原理로서 모든 사람이 의심없이 確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예컨대, 하나님은 唯一하시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복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284)

Wendel이 쓴 바와 같이, 만약 칼빈이 교회를 單一體로 하는 데 있어서의 參與者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면, 그것

283) Ibid., IV. i. ⑨.

284) Ibid., IV. i. ⑩.

은 基本信仰에 關한 이 敎理의 덕분이겠다. 卽, 敎會의 唯一한 眞理은 그리스도 * 라는 敎理이다.²⁸⁵⁾

칼빈은 거짓 敎會와 참 敎會와의 比較를 하면서, 참 敎理와 참 예배에서 떠난 로마 카톨릭 敎會의 主張은 無効라고 強力하게 主張하고 있다.²⁸⁶⁾ 칼빈은 참 敎會의 표적을 말씀이 순수한 전파와 正當한 聖禮典의 執行으로 보았다.²⁸⁷⁾

칼빈은 聖禮典의 基本的 機能이 信者들의 信仰을 維持시키며 그 들 각자를 聖化로 인도하는데 있다고 했다.²⁸⁸⁾ 이 말을 더 구체 적으로 말하기를 * 우리가 信仰을 確固하게 하는데는 福音의 內容과 더불어서 또 다른 手段인 聖禮典이 있다.....

..... 聖禮典의 간단하고 적절한 定義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約束을 우리의 良心에 印치신 일의 外面的인 標的이며 한 편으로 우리 人間界에서는 하나님과 天使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간증하는 일이다 *²⁸⁹⁾ 고 했는데 이는 聖禮가 하나님의 契約의 標識이라는 事實을 말함이다.²⁹⁰⁾

그리고 칼빈은 洗禮와 성찬을 聖禮라고 說明하고 있다.²⁹¹⁾ 그는 洗禮를 定義하기를 赦罪의 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리고 그의 祝福에 參與하는 表로 보았다.²⁹²⁾

285) F.Wendei:op.cit., p.311.

286) Inst. IV.ii. ① - ⑤.

287) Ibid., IV.i. ⑨.

288) Ibid., IV.i. ①.

289) Ibid., IV,xiv. ①.

290) Ibid., IV.xiv. ⑤ - ⑥.

291) Ibid., IV.xv-xviii.

292) Ibid., IV.xv. ①.

그리고 성찬을 說明하면서, 神秘한 聯合이라고 하는 깊은 眞理는 一般 常識的으로 理解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尺度에 가장 알맞도록 이 깊은 眞理의 상징과 형식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이 성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분간할 수 있는 「담보」와 「認知票」라고 했다.²⁹³⁾ 結局 성찬을 主님의 희생을 우리 自身안에 체험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結論했다.²⁹⁴⁾

참 教會의 표적을 칼빈이 說明하는 가운데 訓練을 澆고 덜 重 點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으며, 教會의 가장 重 點한 本 質 가운데 하나로 보지도 않았다. 이 訓練이 教會의 定義가 되지 않는다는데 라고 했다. 칼빈은 이 訓練에 關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教會에 自身을 주심은 教會를 사랑하신 結果 教會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5)

그러나 주께서 날마다 教會의 주름잡힌 것을 펴주시며, 그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애쓰신다는 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진실인 것이다. 따라서 教會의 「거룩함」은 아직 完成되어 있지 않다고 結論지을수 있다. 그러므로 教會가 「거룩」하다는 것은 날마다 向上하고 있으며 또한 성결의 最終目標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것을 意味한다.²⁹⁵⁾

칼빈의 教會에 對한 至高의 目的은 教會가 「거룩」의 이름을 간직하는데 있었다.²⁹⁶⁾

293) Ibid., IV.xvii. ①.

294) Ibid.

295) Inst. IV.i. ⑩.

296) A.Hunter: op.cit., p.222.

최고의 道德性과 純潔性은 最高의 重寶한 일로서 敎會는 이 일을 추진시키는 막중한 責任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²⁹⁷⁾ 칼빈은 한번 信者의 定義에 關해 言及했는데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純正과 사람앞에서 正直이 信者를 만든다"고 했다.²⁹⁸⁾ 칼빈에게 福音은 個人과 社會의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새로운 법이었다. 칼빈의 公的 活動에서 부터 그의 關心事는 삶속에 信仰을 表現트록 하는 일이었다.²⁹⁹⁾ 事實 칼빈의 一書은 이와 같은 敎會論에 근거하여 訓練을 敎會의 重要기능과 目標으로 提議했었다.

그러면 實際로 信仰을 갖도록 하는 外的도움 手段이 된 敎會에서 敎會의 秩序를 갖도록 하는 使役의 多樣한 기능과 職務들이 있다. 칼빈은 이에 關한 적절한 表現을 열 4:11-13 까지에서 찾고 있다.³⁰⁰⁾ 즉 사도, 선지자, 福音 傳하는 者, 牧師와 敎師들로 福音을 전파케 하며 敎育하며 그리고 거룩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敎會에 남기신 福音使役의 職務들은 무엇인가?

初代敎會는 必要에 따라서 많은 職務들을 만들었었다. 秩序의 사람인 칼빈은 使徒들의 習慣과 古代敎會의 形便을 在視했으며, 法律家인 그가 또한 16세기와 同時代의 必要性을 간파하여서 敎會

297) Ibid.

298) Comm. on John 1:47.

299) A. Hunter: op. cit., p. 222.

300) Inst. IV. i. ⑤.

內 4 個의 職分을 두었다. 卽 牧師, 教師, 長老 그리고 執事였다.³⁰¹⁾

가장 重뽁한 職分은 말씀전파와 聖禮의 執行 그리고 教育訓練을 擔當하는 牧師였다.³⁰²⁾ 그리고 教師는 聖經解釋을 통하여 信者들, 가운데 純粹한 教理가 保持되도록 하는게 있었다.³⁰³⁾ 牧師와 教師의 機能이 가장 必要不可欠의 것이었으며 基本的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信者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³⁰⁴⁾

長老의 主된 任務는 牧師를 도와 教育訓練을 實行하는 것이다.³⁰⁵⁾ Wendel 에 依하면 1536 年度版 綱領에는 長老職이 없었는데 칼빈이 바젤 (Basle) 에서 牧會를 하는 동안 長老職의 必要性을 깨닫고 1537 年에 「Genevan Articles」에 長老制度를 追加하였다. 그러나 1543 年度 第三版의 綱領에서야 비로서 長老制度에 關한 理論을 展開하였다.³⁰⁶⁾

執事は 加난한 責를 들보는 職任을 맡는다. 詩전 5:9-10 에 根據하여 說明하고 있다.³⁰⁷⁾

教會의 職分者들을 選出하는 때는 두가지의 根據가 있는데 하나는

301) Philip Edgcumbe. Hughes: ed., and tr.,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1966. p.35.

302) Inst. IV.iii. ④.

303) Ibid.

304) Inst. IV.i. ①; iii. ④.

305) Inst. IV.iii. ⑧.

306) F.Wendel: op.cit., p.304.

307) Inst. IV.iii. 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召命을 주셔서 그들을 말도록하는 神的 根拠와 다른 하나는 信者들의 共同體에서 選出하는 人間的 根拠가 있다.³⁰⁸⁾ 그러나 信者들의 선택은 神的 根拠에 制限되는 것이다.³⁰⁹⁾ 그러므로 그 選出은 神的 意志와 召命에 對한 理解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事實 敎會職分이 언제나 奉仕와 그리고 하나님의 道具로서 存在한다고 해서 결코 그 權威가 外面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들의 權威는 하나님의 召命으로 부터이며, 하나님이 制定하신 共同體로서의 敎會로 부터이다. (엢 4:11) 그러므로 그들의 權威는 사람으로 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이다.³¹⁰⁾

敎會의 權能에 關한 칼빈의 見解는 세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敎理와 司法權 그리고 規律을 制定하는 權能이다.³¹¹⁾ 칼빈은 敎理權을 說明하면서 敎理를 定義하는 權限은 敎會의 構成員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있다고 한다.³¹²⁾ 敎會의 權能은 하나님의 말씀에 制限된다.³¹³⁾ 만일 敎會가 말씀에 依한 聖靈에 支配되지 않는다면, 敎會의 權威는 存在치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³¹⁴⁾

敎會의 司法權은 * 도시나 촌락이 統治者나 支配者가 없이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敎會도 靈的 政治를 必要로

308) Ibid., IV.iii. ⑩ ; xi. ⑮.

309) Ibid., IV.iii. ⑫.

310) Ibid., IV.viii. ②-④ ; iii.⑩.

311) Ibid., IV.viii. ①.

312) Ibid., IV.viii. ②.

313) Ibid., IV.viii. ①-⑨.

314) Ibid., IV.viii. ⑬ ; viii. ⑥.

한다.³¹⁵⁾ 勿論 칼빈이 特別히 神靈의 司法權과 世俗的 司法權을 아주 조심스럽게 差別두고 있다.³¹⁶⁾ 마 18:15-18을 그 성경적 根據로 提示하고 있다.³¹⁷⁾

教會의 規律制定權에 關한 칼빈의 見解는 社會的 實態에 授與하고 있으며, 綱要, IV .X. ②에서 잘 要約하고 있다. * 모든 것을 適當하게 하고 秩序대로 하라 * (고전 14:40) 이 句節은 教會의 規律制定權에 가장 적절한 金언이다.

마지막으로 教會와 國家의 問題를 取扱함으로 教會에 關한 教理를 맺고자 한다.

教會의 權威는 教理問題에 있어서는 絶對的이다. 國家에 對한 犯法者들에 依해 教會가 다를수 있겠는가? 이에 對한 칼빈의 見解는 國家와 교회의 司法權은 分離되어야 하며 서로 排他的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둘은 상호 補充的이어야 하며 決코 正反對가 아니라고 한다.³¹⁸⁾

官職은 하나님께서 制定하신 것이다.³¹⁹⁾

칼빈은 國家를 하나님께서 教會를 補助하도록 制定하신 制度로 본다. 教會의 職分者들은 市民에게 道德教育을 시키며 官職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嚮求하시는 바를 說明하는 義務가 지워졌다고

315) Ibid., IV. xi. ①.

316) Ibid., IV. xi. ③.

317) Ibid., IV. xi. ①.

318) Ibid., IV. xx. ②.

319) Ibid., IV. xx. ④. 칼빈의 이 견해에 대한 성경적 근거 : 출 22:8 ; 시 82:1, 6 ; 신 1:16-17 ; 잠 8:14-16 ; 요 10:35 ; 롬 12:8, 13:2 ; 고전 12:28.

칼빈은 보았다. 反面 官職者들은 敎會를 保護할 義務와 福音이 널리 전파되도록 추진시킬 義務가 있다고 하면서³²⁰⁾ 惡한 統治者는 하나님께서 審判하신다고 했다.³²¹⁾

320) Ibid., IV.xx. ③.

321) Ibid., IV.xx. ㉔ - ㉕.

Ⅲ. 教 育 神 学 理 解

1. 序.

基督敎敎育의 源泉을 理解하러면 神学의 原理인 三位一體의 敎
 렬와 그 敎례에 따르는 기타 敎례를 떠날수가 없을 것이다. 왜
 나하면 그 敎례가 基督敎敎育의 源泉이 되는 理由は 모든 것의
 源泉이 되는 하나님에 關한 研究를 하는 까닭이다.

神学分野에서도 敎育의 位置가 어디에 屬해 있는지에 對한 태도
 가 매우 片面的한 상태에 놓여 있다.³²²⁾ 神學者들 中에는 基督敎敎
 育이란 敎育心理와 方法을 研究하는 것에 不遇한 것으로 밖에 알
 지 못하고 敎育이 根本的으로 神学的 訓練에 얼마나 重要的 것인
 지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敎育者들까지도 敎育이 神학과
 關係가 깊은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敎育分野에서 神
 学的인 問題를 兼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²³⁾

그리서 神학과 敎育이란 어찌한 關係를 맺고 있는가를 밝힘으로
 서 神學이 基督敎敎育의 源泉이 됨을 論證하고자 한다.

2. 神학과 敎育의 定義

神학과 敎育의 關係를 理解하러면 먼저 神學自體의 範圍를
 밝혀야 한다.

322) 김득룡: 기독교 교육학원론, 종신대출판부, 1976, p.190.

323) Ibid.

만약에 이것에 대한 明確한 理解가 없다면 教育神學에 關한 研究는 수박 겉핥기 식이 됨을 免키어려울 것이다.³²⁴⁾ 벌코프 (Berkhof)는 神學을 定義하여 「敎義나 혹은 神學의 研究는 하나님 의 敎理와 더불어 始作한다.³²⁵⁾」고 했으며, 스트롱 (Strong)은 「하나님과 우주사이에 對한 關係와 하나님에 對한 研究를 하는 科學이 神學이다.³²⁶⁾」라고 定義했다. 워-필드 (Warfield)는 「神學이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우주에 關係를 論하는 學이다³²⁷⁾」 였다. 뎀니 (Dabney)는 「神學은 하나님에 關한 學이다³²⁸⁾」, 셰드 (Shedd)는 「無限과 有限, 하나님과 우주를 아울러 關係하는 學이다³²⁹⁾」 그리고 바빙크 (Bavinck)는 神學을 가르켜 「하나님에 對한 知識의 學問的 關係, 더욱 符號하게 基督敎立場에서 그가 自己에게 對하여 自己의 말씀으로 敎會에게 啓示하신 그 知識이다³³⁰⁾」고 定義하였다.

古代의 어거스틴 (Augustine)은 神學을 「神格에 關한 合理的 論議」로 表示하였으며, 루터파와 改革파의 敎義學者들도 神學을 그

324) John M. Hull : "Whth is Theology of Education?" Scot. Journ of Theol, Vol.30, pp.3-29. p.3.

325) L.Berkhof : Systematic Theology,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1, p.19.

326) 박형룡 : 교의신학제 1권, 백함출판사, 1972, p.49.

327) Ibid.

328) Ibid., p.50.

329) Ibid.

330) Ibid.

말뜻과 調和되도록 하나님에 關한 지식 혹은 學問이라고 했다.³³¹⁾

그런데 톨웰 (Thornwell) 과 같은 이는 神學을 宗教의 學³³²⁾이라고 하였다.

이 定義는 너무도 그 범위가 넓어서 그 속에서 現代比較宗教, 宗教心理學, 宗教哲學, 그리고 宗教的 經驗까지 取扱하고 있다. 神學을 보통 宗教라는 同一한 定義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勿論 슐라이어 막허 (Schleiermacher) 와 같은 이는 感情的 經驗에다 置重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³³³⁾

이런 定義는 概略에 가까운 宗教的 經驗에 適合한 說明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定義란 하나님에 關한 研究를 하는 科學이 아니고 主觀的인 人類學이 될 수 있을지언정 神學이 될 수 없음을 分明히 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神學은 하나님의 權威에 依從해 있기 때문이다.³³⁴⁾ 그러므로 神學의 定義를 매듭짓는다면 카이퍼

(Kuyper) 가 定義내린대로 眞理에 포함될 眞理를 사람이 有限한 知識의 힘에 적응하는 모형적 神知識이 神學이다³³⁵⁾ 할이 適當한 것이다.

그러면 敎育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敎育을 (education) 이라는 것은 [educatia] 혹은 [educare] 라는 라틴어에서 由來한 것

331) Ibid., p.49.

332) Ibid., p.50.

333) 김득룡: op.cit, p.191.

334) Ibid.

335) Ibid.

으로, 그것은 『밖으로(e) 끌어낸다(ducare)』는 뜻이다.

그러면 밖으로 끌어낸다면 무엇을 끌어낸다는 뜻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敎育받을 人間이 타고난 先天의인 素質과 能力을 잘 伸張 發露시켜 훌륭한 人間像으로 길러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聖經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創造하신 그 형상을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完全하신 것처럼 被造物로서 完全케 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³³⁶⁾

그래서 17세기의 偉大한 敎育者 코메니우스(Comenius) 같은 이는 論하기를 『세계는 하나님이 創造하시고 模範하시는 것이니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날 받은 그대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敎育이야말로 하나님이 最高 善으로써 創造한 自然의 法則에 따르는 것이다³³⁷⁾』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敎育에 있어 『人生 궁극의 目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創造받은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幸福을 누리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참되고 좋은 人間을 양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에 따라 敎育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³⁸⁾는 것이다.

그러므로 基督敎敎育은 人文主義的 敎育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겠다.

336) Ibid.

337)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8, p.172.

338) Ibid., p.173.

교육이 단순히 아동으로 하여금 그의 自然的인 경향성 (natural tendencies) 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애물을 除去해 주고 그러므로서 아동이 社會속에서 自身の 先天的인 諸능력을 充分히 表現해 나갈수 있는 自由로운 領域을 提供해 주는 것이라는 主張과 人間이 自己의 才能으로 自己가 속한 社會속에서 그들의 創造 主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敎育을 생각 하는 것은 확실히 別個의 문제이다.³³⁹⁾ 人文主義 敎育에 關한 定義를 살펴보면 뉴만 (John Henry Newman) 같은 이는 『어느 대학의 理想』이라는 책에서 『知識은 敎育의 充分한 目標』³⁴⁰⁾ 라고 했으며, 샤프츠베리 (Lord Shaftesbury) 는 社會的으로 그리고 貴族的인 紳士를 만들어 내는 것이³⁴¹⁾ 敎育目標라고 했으며, 스펜서 (Herbert Spencer) 와 학슬레이 (Thomas Huxley) 는 『bread and butter』가³⁴²⁾ 그리고 플라톤 (Plato), 루소 (Rousseau), 페스탈로치 (Pestalozzi) 는 『人間의 모든 질병의 해결책』이³⁴³⁾ 敎育의 目標라고 했다.

이에 비해 基督敎敎育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始作되고 結論을 맺는 것이다.³⁴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敎育의

339) Jan Waterink: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Eerdmans, 1954, pp.9-10.

340) H. Mason: op.cit., p.27.

341) Ibid.

342) Ibid.

343) Ibid.

344) H.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67, p.32.

진정한 中心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教育 그 自體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³⁴⁵⁾

眞實한 基督敎教育은 人間中心이 아니라 하나님 中心의 教育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도아래서 수행되어지는 教育이다.³⁴⁶⁾

이렇게 볼때 神學과 教育과의 定義에서 서로 共通된 點을 窺見하게 된다. 事實 하나님과 사람을 本質을 다루는 學問이 神學이라면 教育도 이 神學에다 基礎를 두지 않고는 教育 그 自體를 研究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같이 神學과 教育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密着한 關係를 맺고 있다.

基督敎教育의 定義란 神學的 定義속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基督敎教育의 本質을 통찰할 수 있는 神學的인 中心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³⁴⁷⁾

3. 神學과 基督敎教育의 目的

神學的 目的이란 神學的 任務를 다하는데 있는 것이다. 神學的 任務에 關하여 近代自由主義 神學은 여러가지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 슬라이어 막허 (Schleiermacher)에 의하면 神學은

345) 간하백 : 『하나님 중심의 教育』, 교사의 벗 26호 1967.6, pp.8-9, p.8.

346) C.B Eavey, "Aims and Objectives of Christian Education," An Introduction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ed, Edward J.Hakes, Chicago:Moody Press, 1968 pp.51-56, p.53.97.

347) 김득룡 : op.cit, p.193.

宗教的 靈魂에 그리스도와의 聯合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묘사를
 目的으로 한다³⁴⁸⁾ 고 했으며 밴다익(Van Dijk)을 代表로 한 화
 란 理論主義者들은 슬라이어 락허(Schleiermacher)의 感化를
 반영시켜 「感情」이라는 名詞代身에 「生活」이라는 말로 說明하고
 있다.³⁴⁹⁾ 리츨(Ritschl)파에서는 神學을 「基督敎 信仰의 學問的
 講解」혹은 「基督敎 信仰의 學」으로 말하는 것이 통례였다.³⁵⁰⁾

이에 對해 改革파 학자들은 神學의 任務는 「絶對的으로 確實한
 真理를 學問的인 形式으로 서술하여 基督敎敎理의 全部를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³⁵¹⁾ 이것을 다시 区分하여 具體的으로 論한
 다면, 첫째로는 주로 敎會의 信經 혹은 信徒개요(信仰告白), 要理
 問答등 敎理的 표준에 체현된 敎義들을 研究의 中心으로 하고 그
 敎理들을 踏實하여 組織的인 綜合을 총체적으로 完全케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³⁵²⁾ 둘째로 神學은 敎義체계의 確實性을 聖經에
 의하여 証明을 求함을 目的으로 한다.³⁵³⁾ 왜냐하면 伝道的인 使
 命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啓示 진리의 絶對的 確立性을 爲한
 確證은 他人의 信仰을 환기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이다.³⁵⁴⁾

셋째로는 現代의 人生觀과 世界觀의 立場에서 후에 있을 敎理의

348) 박형룡: op. cit., p.75.

349) Ibid., p.76.

350) Ibid.,

351) Ibid., p.77.

352) Ibid., pp.77-78.

353) Ibid., p.78.

354) 김득룡: op. cit., p.198.

錯謬을 초월하여 지나친 批評을 加함으로서 現代敎會와는 아무런 關係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속단해 버릴 것이 아니라 信仰의 태도로 신중히 고려하면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들을 찾아 낼 것을 目的해야 될 것이다.³⁵⁵⁾ 비해서 敎會의 任務를 다할 수 있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³⁵⁶⁾

다시 말해서 歴史的 基督敎敎會에게 주어서 사람들의 信仰을 도모케 하는 것이다.³⁵⁷⁾

이상에서 神學이 갖는 目的을 다시 要約하면 하나님과 그의 宇宙에 대한 關係들을 確認하고 이 事實들을 真理의 계통적 그리고 有機적인 體系로 組織적인 統一을 展示하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에 대한 事實들의 確認과 組織적인 展示가 그 任務인 동시에 目的인 것이다.³⁵⁸⁾ 그러므로 神學은 神的 事實들의 確認과 展示에 있어서 客觀적인 하나님의 啓示인 聖經에 의뢰할 것이요, 人生의 主觀적인 宗教經驗에서 關鍵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³⁵⁹⁾

이와같이 모든 真理와 實在(reality)의 根源이신 하나님에 대한 研究가 神學이므로 基督敎 敎育의 中心은 神學이다. 왜냐하면 神學이 基督敎 敎育의 궁극적 目標나 目的을 決定하기 때문이다.³⁶⁰⁾

355) 박형룡: op. cit., p.78.

356) Ibid., pp.78 ~ 79.

357) Ibid., p.79.

358) Ibid., p.73.

359) Ibid., p.75.

360) H.Mason:op.cit., p.27.

교육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關係에서 必須的인 部分이다. 그러므로 中극적인 意味에서 教育은 基督敎 教育이어야 한다.³⁶¹⁾

진정한 基督敎 教育의 目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說明하여 주며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要求에 直接 應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는데 있다.³⁶²⁾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子女될 자격을 획득하게 함에 있다. 基督敎 教育은 단순한 人間의 活動이 아니라 個人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 教育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形상 안에서 成養한 사람들이 經驗하는 것이다.³⁶³⁾

結局 基督敎 教育의 目的을 要約하면 하나님께서 定置시켜 주신 모든 生活領域에서 그에게 榮光을 돌리며 人類의 福祉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賜物로 주신 諸才能을 使用할 수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使用하고자 하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獨立된 人格으로 사람을 形成하는 것이다.³⁶⁴⁾

그러므로 基督敎 教育은 基督敎가 없이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것은 全的으로 基督敎에 依存하고 있으며 오직 基督敎를 爲해서 存在하는 것이다.³⁶⁵⁾

361) CB. Eavey: op.cit., p.54.

362) 김득룡 : op. cit., p.199.

363) CB. Eavey: op.cit., p.61.

364) J. Waterink: op.cit., p.41.

365) CB. Eavey: op.cit., p.51.

以上과 같은 基督敎 敎育의 目的設定만 보더라도 神學없이 이
런 目的이 說明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神學의 定義와 本質 그
리고 內容을 充分히 理解하는 것만이 基督敎 敎育의 本質과 目的
을 明確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神學이 敎育面에 적지 않
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事實에서 再認識하게 된다.³⁶⁶⁾

i) 神學은 모든 知識, 모든 真理, 그리고 모든 存在에 關係된
역대를 提供하여 준다. 神學은 거룩하고 世俗的인 真理 모두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事實을 나타내 준다.

ii) 삶의 多様な 領域은 神學에서 說明되는 信仰의 表現에 따
라서 調整된다. 여기에 基督敎 哲學의 질잡이가 된다.

iii) 存在의 源泉이 되는 하나님의 本質을 밝히고 說明하는 것
을 特殊化시키고 있다.

iv) 하나님의 本質이 啓示됨으로 真理를 分明하게 說明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v) 真理가 해석될 수 있는 創造, 內在性 그리고 초월성과 같
은 思想體系를 提供한다.

vi) 歴史와 變遷지어서, 目的, 模範, 成肉身, 구원 그리고 運命에
關한 범주를 提供한다.

vii) 神學은 하나님의 人性에 着점을 맞추고 그리고 偉大한 原
則을 통한 表現으로 모든 知식을 統合하는 中心點이 된다.

366) HW. Byrne: op.cit., p.236.

vii) 神學은 目的과 運命의 感覺 두가지를 마련하여 攄으로써 人間을 爲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ix) 神學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는 생애로 바 로 지도하여 준다.

x) 神學은 啓示의 靈的 本質성을 通하여 교과과정의 內容을 規定하여 준다.

4. 基督敎教育의 理論的 根柢로서의 神學

教育史의 過去를 더듬어 보면 敎育과 神學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勿論 希臘思想과 로마思想과는 判別하게 다른 敎育을 히브리民族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을 敬畏하는 것을 知識의 根本으로 삼고 있었던 그들은 確實히 神學을 理論的 根柢로 하여 敎育을 하였던 것이다.

예수님 當時에나 初代敎會時代 그리고 中世紀 初의 敎育은 自然的, 現世的, 團體的, 主知的 傾向을 가진 希臘의 敎育과 달리 超自然的, 來世的, 個人的 그리고 主情的 傾向을 占有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토 윌만(Otto Wilman)은 中世紀 敎育을 말할때,

i)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애썼던 것과 박애, 자비를 배우는 것 이다. ii) 精神을 하나님께 集中시키는 것이다. iii) 모든 교수하는 것과 하나님께 對한 경건심을 가지고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뜻에 順從할 것을 要求하고 있었다.³⁶⁷⁾

367) 김득룡 : op. cit., p.211.

다시 말하면 그때의 敎育은 理想은 信仰的 人格을 養成하는데 集中하였고 敎育의 方法에 있어서는 信仰을 強調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敎育은 敎회의 큰 감독하에 神學을 基礎로 하였다. 이런 敎育을 해온 것은 칼 슈미트(Karl Scheummitt)가 설파한 바와 같이 * 完全無欠한 偉大한 예수님께서서 자기 冥生活과 敎訓으로 敎育學의 永遠한 原理를 주었다³⁶⁸⁾고 한대르이다.

예수님과 같이 바울도 偉大한 敎育者인데 그가 異邦人에게 傳道하기에 必要한 것은 組織的이고 體系化한 神學이었다. 그의 神學을 基礎로 한 敎育原理는 卽大한 影響을 後世 敎育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 影響은 다음과 같다.³⁶⁹⁾

i) 國家主義에서 個人主義로 變하게 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平等하다는 原則下에 個個人의 獨自的인 가치를 所有하게 하였다.

ii) 계급주의에서 世界主義로 變했다. 즉 하나님안에서는 누구나 다 平等하며 계급主義가 타파되고 世界人民이 다같이 한 兄弟자매가 될 수 있게 된다.

iii) 現世主義에서 來世主義로 變하게 했다. 敎育의 目的은 現在뿐만 아니라 來世에 天國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永遠한 幸福을 누릴 수 있게 하는게 있었다.

이 思想은 中世 코메니우스(Comenius) 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368) Ibid.

369) Ibid.

i) 하나님에 대한 敎理

- ① 統一性 (unity) 과 궁극적 存在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存在하며 또한 中心이 된다.
- ② 眞正한 哲學的 統一性은 啓示에 關한 基督敎의 (Christian) 하나님에게서만 發見된다.
- ③ 萬物은 創造를 통하여 하나님과 理智的으로 關係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 ④ 하나님을 아는 것이 知識의 根本이다.
- ⑤ 敎育의 根本은 人格的 하나님에 關한 啓示이다.
- ⑥ 하나님에 關한 敎理는 하나님의 屬性을 組織化한 것이므로 主題에 있어서 神性에 關한 啓示에 基點이 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⑦ 하나님에 依한 創造事實은 敎育과정을 위한 基礎와 敎育과정의 主題를 마련하여 준다. 그러므로 根本的으로 世俗的인 學問에서는 이런 主題가 있을 수 없다.
- ⑧ 敎育의 根本的인 問題란 本質에 있어서 神學的인 것이다. 이것을 理解하기 위해서 神學的인 智識가 要求된다. 自然科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極大的인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神學的인 智識에 關한 背景을 또한 해석해야만 한다.
- ⑨ 神學은 敎育에 對한 指針을 마련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神學者들과 敎育者들은 相互 協調할 수 밖에 없다.
- ⑩ 神學을 研究하지 않고도 敎師나 哲學者나 또는 科學者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基督敎 神學 없이는 어떤 分野에 걸쳐서

든지 크리스찬이 될 可能性을 결코 찾아 볼 수 없다.

⑪ 神學은 하나님, 人間, 社會, 그리고 宇宙의 本質을 나타낼과 人間의 本性和 運命에 對하여 明白하지 않은 것을 밝혀 줌으로써 教育的인 混同을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의 總잡이가 된다.

⑫ 神學이 教育의 制限性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基督教 教育이란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靈感만이 이것을 자라게 할 수 있을 뿐 教育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⑬ 靈感은 하나님의 啓示를 人間에게 알게 함과 하나님의 구속이 人間의 마음과 生活속에 實效化시키는 바를 管理하는 代價者이다.

ii) 啓示에 關한 敎理

① 基督教 教育이란 하나님의 啓示를 解釋하는 것이다.

② 教育의 目的은 啓示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教育의 目標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人間에게 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

③ 教育의 內容이란 直接 하나님과 接觸된 것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敎科과정으로 구민 것이다.

④ 神學은 學生과 敎師에게 모든 진리안에서 나타내 보여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屬性을 체계화 시킨 것이다.

⑤ 하나님은 다음 세가지 方法으로 自己 自身을 啓示하고 계신다. ㉠自然을 통한 一般啓示로 ㉡聖子를 통하여 人格的으로 自身을 啓示하신 啓示로 ㉢聖靈을 통하여 特別한 自己 自身の 啓示를 하고 계신다.

⑥ 聖經은 教育과정으로서의 相互作用의 要素가 마련되어 있다.

iii) 人間에 關한 敎育

① 人間은 進化로 태어난 存在가 아니라 하나님의 形象대로 하나님이 創造하셨다.

② 人間은 하나님을 依存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學生의 最大, 最善의 關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밖에서는 行事될 수 없다.

③ 罪의 問題는 敎育을 보다 難解하게 만든다.

(a) 罪는 人間을 소경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주신다. 이것이 敎育이다.

(b) 罪는 人間을 절름발이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는 바로 잡아 주신다. 역시 이것이 敎育이다.

(c) 罪는 마음을 부패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와 聖靈은 이와 같은 마음을 重生시키고 眞深케 한다. 이것이 역시 敎育이다. 이와같이 重生의 체험은 보다 좋은 敎育을 可能케 한다.

(d) 罪는 眞理와 아무 關係가 없다.

(e) 罪는 利己主義的 人間을 만든다.

(f) 罪는 人間敎育 目標에 關한 개념을 흐리게 만든다.

④ 學生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敎育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⑤ 神學은 앞으로 닥쳐올 人間의 運命과 地上에서의 生의 目的에 對한 分明한 對答을 마련해 주고 있다. 神學은 敎育的인

原理와 實際에 있어서 조종할 수 있는 要素가 기록되어 있다.
善良한 市民養成이라든지 人格發展이라든지 또는 人格개발이란 등등의 다른 모든 目的들은 제2의 目的이다. 또한 궁극적인 빛 안에서만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⑥ 教育은 全 人類를 爲하여 마련되고 보편화된 特權이다.

⑦ 人間은 自由로운 가운데 道德的인 義務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創造된 理性的 的造物이다. 그러므로 어떤 동물을 다루듯이 教育者들에 의하여 成長의 절정까지 이르도록 接近할 수는 없다.

iv) 구원에 關한 敎理

① 예수 그리스도는 教育의 中心이 되신다.

(a) 그가 永生을 준비하셨다.

(b) 成肉身은 完全한 人間性的 完全한 標本이다.

(c) 역시 成肉身하신 것은 教育的인 方法의 最高의 標本이다.

② 眞正한 教育은 人格안에서의 구속이다.

③ 구속의 준비란 그리스도 안에서 必要하고도 적당한 教育을 이루는 것이다.

④ 方法에 關係되는 教育的 進行에 있어서 根本的인 要素는 삶과 더불어 있는 人生 그 自體인 것이다. 教育的으로 最善을 다할 수 있는 生活이란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人間은 이것을 行함으로서 배우게 된다.

IV . 칼빈의 教育神学 理解

1. 教育者 칼빈

A. 序 : 本名이 Jean Chauvin인 프랑스 新敎의 理論家이며 宗教 改革者인 John Calvin은 Noyon에서 出生했으며 파리의 Marche 大学과 Montaigu 大学에서 修業했다. 18才에 Martheville 마을의 聖 Martin 敎會 牧師補로 임명되었으며, 후에 Pont l'Eveque의 목사보가 되었다. 그의 父親은 칼빈의 뛰어난 雄辯術을 보고 法律을 工夫시키기 爲해 1528年 Orleans 大学에 보냈으나 父親이 돌아가신후 칼빈은 1531年 古典과 히브리語를 배우기 爲해 파리로 돌아왔다. 宗教改革의 原理들에 對한 關心과 1533年 그의 갑작스런 轉換 (conversion)으로 칼빈은 파리에서 宗教改革에 對한 것을 說敎하게 했다. 迫害을 피하기 爲해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했으며 1536년에는 기독교 綱要를 完成했으며 같은 해에 그는 제네바에 도착해서 제네바市 行政官들에 依해 說敎者로 選出되었다. 그 후에 市民들이 告白하여야 할 組織的인 新敎의 信仰告白書 (a Systematic Protestant Confession of Faith)를³⁷²⁾ 完成했으며, 최초로 제네바 요리문답 (Geneva Catechism)을 썼고 1536년에는 프랑스語로 2年뒤에는 라틴어로 出간했다.³⁷³⁾

칼빈이 제네바市에서 敎會를 시작했을때, 敎會補助者의 不足과 市民)

372) Elmer L. Towns ed.,: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Baker, 1975, p.167.

373) Ibid.

들의 教育的 無知와 기독교에 對한 無知에 直面했다. 그는 効果
 的인 믿음과 生活에 對한 基本的인 기독교 敎理를 인식하고 그
 지식을 전달할 敎育받은 牧師들의 重要한 역할을 認識했다. 1536
 年 5월 31일 칼빈은 제네바市民들에게 모든 아동들이 參與하는
 學校設立에 關한 계획을 담은 한 계획서를 提案했다.³⁷⁴⁾

가난한 아동들에게는 학비를 免除하는 계획이었다. 그 결과
 the College de la Rive의 設立을 보았다. 읽기, 쓰기, 산수,
 文法, 宗教以外에도 학교 교장인 Farel과 칼빈은 매일 가르쳤는
 데 Farel은 구약을 칼빈은 신약을 가르쳤다.³⁷⁵⁾

그러나 칼빈의 계획은 많은 그의 친구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아 1538年 Farel과 함께 칼빈은 제네바市로 부터 추방되었
 다. 그들은 Strasbourg市로 갔고 거기서 칼빈은 牧師와 神學敎
 授가 되었다.

칼빈의 추방후, 제네바市는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그로 因해 제네바
 市의 設立者들은 칼빈이 다시 돌아오도록 說得했다. 그래서 칼빈
 은 1541年에 돌아왔으며 그는 宗教生活뿐 아니라 社會도 統制할
 수 있는 獨裁的인 政府(autocratic government)를 수립키 위
 한 제네바市의 法律을 改正했다.

改革者 칼빈은 그의 제네바 要理問答³⁷⁶⁾ - 1부는 믿음(De Fide)
 2부는 律法(De Iege), 3부는 기도(De Oratioue), 4부는 성

374) Ibid., p.168.

375) Ibid.

376) 이 요리문답은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있으며 원본에
 는 번호가 붙어있지 않다.

제 (De Sacramentis) 를 다루고 있다. — 를 대폭 改正했으며, 1542年 대략 58 p 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칼빈은 여기의 천남사에서 " 세계는 극도의 야만주의에 걸고 있으며, 교회는 무서운 파멸에 직면해 있다 " 고 강조했는데 이것의 최소한의 의결책은 교육이라고 했다.³⁷⁷⁾

마지막으로 칼빈은 적절한 學校의 신축과 初·中等敎員의 任命을 要請했다. 모든 교원은 敎會敎師에 의해서 선발되고 지도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그래서 the Collège de la Rive는 再建되었으며, 18年間敎育을 계속하였다.³⁷⁸⁾ 아동敎育은 敎회에 의하여 일요일에 두번, 수요일에 한번 보충되었으며 학생들은 설교를 듣고, 명상하고, 기록하는데 주일을 보냈고, 수요일에는 설교를 듣고 한시간 동안 시편을 찬송했다.³⁷⁹⁾

그러나 18年間 제네바市の 政治的 소용돌어는 칼빈의 敎育계획을 발전시킬 틈을 주지 않았다.

W.Stanford Reid 가 말한 바와같이 1541-1556年까지 自由主義者와 카톨릭교도들 그리고 政治家들에 對抗하여 改革敎會를 維持키 위한 戰爭이 계속되므로 학교를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다.³⁸⁰⁾

377) E.Towns:op.cit., p.168.

378) Ibid., p.169.

379) Ibid.

380) Ibid.

B. 제네바 아카데미

1557年 칼빈이 그 當局 루터파 통제下에 있었던 Strasbourg市를 訪問했을때, 政治的 환영은 받지 못했으나 大學 환영회에서 그는 그의 전 동료들과 교육문제를 討論했다. 제네바에 돌아왔을때 그는 즉각적으로 大學의 設立을 主張했고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교외에 장소를 얻었다. 그후 그는 市 當局에 財政的 원조를 要請했으나 市 當局의 가난을 理由로 거절된 후, 개인 자선團體에 의지했다.³⁸¹⁾

칼빈의 다음 문제는 교수진이었었는데 베른의 Zwingli 當局이 로잔 교수단과 不和함으로 도움이 되었다.

잘알려진 Theodorus Beza와 그의 동료들은 사임하고 제네바市로 移住하여 칼빈아카데미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Beza는 牧師였고 Antoine Chevalier은 히브리 교수로 헬라어 교수는 Francois Berand, 예능교수 Jean Tagant였다. 1559年 6月5日 聖 베드로 敎會에서 있는 개회사에서 Beza는 청중들에게 '大學의 目的은 오직 교훈을 爲한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惝惝관에서 익숙되어 있는 헛된 利益은 더욱 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榮光과 宣敎에 関한 가치있는 조인이 되어서 그들의 義務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칼빈은 그가 作成한 開會辭에서 아카데미의 規則과 法律은 낭독하였다.³⁸²⁾

이와같이 서유럽의 改革者들을 爲한 文學과 神學敎育의 中心地가 된

381) Ibid.

382) Ibid.

B. 제네바 아카데미

1557年 칼빈이 그 當局 루터파 통제下에 있었던 Strasbourg市를 訪問했을때, 政治的 환영은 받지 못했으나 大學 환영회
에서 그는 그의 전 동료들과 교육문제를 討論했다. 제네바에 돌아
왔을때 그는 즉각적으로 大學의 設立을 主張했고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교외에 장소를 얻었다. 그후 그는 市 當局에 財政
的 원조를 要請했으나 市 當局의 가난을 理由로 거절된 후, 개인
자선團體에 의지했다.³⁸¹⁾

칼빈의 다음 문제는 교수진이었는데 베른의 Zwingli當局이 로잔
교수단과 不和함으로 도움이 되었다.

잘알려진 Theodorus Beza와 그의 동료들은 사임하고 제네바市
로 移住하여 칼빈아카데미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Beza는 牧師였고 Antoine Chevalier은 히브리 교수로 헬타어
교수는 Francois Berand, 예능교수 Jean Tagant였다. 1559年
6月5日 聖 베드로 敎會에서 있는 개회사에서 Beza는 청중들에게
'大學의 目的은 오직 敎훈을 爲한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자
신들의 救贖관에서 익숙되어 있는 헛된 利益은 더욱 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榮光과 宣敎에 關한 가치있는 조인이 되어서 그들
의 義務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칼빈은 그가 作成
한 開會辭에서 아카데미의 規則과 法律은 낭독하였다.³⁸²⁾

이와같이 서유럽의 改革者들을 爲한 文學과 神學敎育의 中心地가 된

381) Ibid.

382) Ibid.

제네바 아카데미는³⁸³⁾ 神政國家를 세우려는 칼빈에게 있어서 면류관과도 같은 成就였다.³⁸⁴⁾ Mackinnon은 分析하기를 칼빈은 神政思想³⁸⁵⁾에 맞도록 市民을 効率的으로 訓練시키고자 하는 目的을 達成키 위해서는 이러한 아카데미가 必要했다.³⁸⁶⁾ 고 했다.

아카데미는 敎會에 의해서 지도되었다. 敎사들은 엄한 敎會的 訓練을 받았고, 牧師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敎師는 信仰苦白書를 承認해야 하며 學生들의 믿음과 生活을 감독했다. 이 학교는 대략 16才까지의 아동을 위한 예비단계인 Schola privata와 대학인 Schola Publica로 나누어진다. Schola publica는 처음에는 神學과 藝術을 가르쳤으나 Calvin은 法律과 醫學을 첨가하기를 希望했다.

全學院은 2年 임기로 임명된 Beza 총장에 의해서 進行되었으며, 그의 責任은 學生들의 入學과 進級의 認定을 포함했다. Beza는 專門課程 (Schola publica)을 감독했고, 反面에 그의 조력자는 豫備課程 (Schola privata)의 敎장이었다. 總長下에는 허브리·헬라 藝術 그리고 神學敎授가 있었고 校長下에는 平議員 (regent)들과 敎師들이 있었다.³⁸⁷⁾

383) CB.Eavey: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Chicago:Moody Press, 1961, p.164.

384) J Chr.Coetzee:'Calvin and the School',John Calvin-Con-temporary Prophet,ed,Jacob T.Hoogstra,Grand Rapids:Eerdmans, 1959, pp.197-226, p.211.

385) Mackinnon은 이 神政사상을 해석하기를 엄격한 의미에서 도덕적이고 복음적 의미보다는 유대적 神政체제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政宗暴君 (a politico-ecclesiastical tyranny)이라고 했다. J.Mackinnon:op.cit., p.164.

386) J.Mackinnon:op.cit., p.170.

387) E.Towns:op.cit., p.170.

이 學院은 一時的인 유럽의 학교와는 대조적이었는데 Charles Bourgeaud 가 말한 바와같이 '學生들은 어떠한 監督이 없이 自身들의 흥미에 따라서 學級에 出席했으며 몇달 뒤에는 몇해 뒤에는, 그들은 신참자들에게 明確하게 說明해 줄 수 있는 어떤 論文을 提出해야만 했다' 388) 그들이 이것을 成功的으로 해낸다면 그들은 적절한 學位가 認定되었다. 시험제도는 없었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 現代的立場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우연적이었고 非組織的이었다. 389)

'使徒時代 以來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학교 가운데 가장 完全한 그리스도의 학교' (The maist perfyte schoole of Chryst that ever was in the erth since the dayis of the Apostelilio) 라고 評한 John Knox 의 말은 390) 참으로 妥當性이 있다.

왜냐하면 世界의 改革運動을 이르는 指導者를 길러내는 溫床이 되었으며 391) 이와같이 철저한 信條와 철저한 敎育이 서로 調和 되므로써 칼빈은 프랑스의 Huguenots, 화란의 Burghers, 영국의 Puritans, 스코틀랜드의 Covenanters, 그리고 뉴잉글랜드의 Pilgrim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392)

그래서 獨逸의 史學者 Häusser는 칼빈의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말미암은 파장은 '세계사의 작은 한 조각' (a little bit

388) Ibid.

389) Ibid.

390) J.Mackinnon:op.cit., p.171.

391) CB.Eavey:op.cit., p.164.

392) P.Schaff:op.cit., p.264.

of the World's history) 라고 했는데³⁹³⁾ 이는 너무 過小評價한 듯하다. 차라리 Cunningham의 이表現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 'Calvin은 사도 Paul 다음으로 人類를 爲해서 가장 有用한 일을 한 사람이다.'³⁹⁴⁾

칼빈은 참으로 大衆教育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一般學校의 創始者인 것이다.³⁹⁵⁾

C. 칼빈의 教育思想

칼빈은 결코 教育理論에 貧困하지 않았다.³⁹⁶⁾

하나님의 말씀에 全的으로 의지하여 自身の 全 생애를 가슴과 實踐으로 옮긴 神學者이다.³⁹⁷⁾

이 제네바 아카데미야 말로 그의 思想 즉 말씀을 基礎로한 教育理論을 가슴으로 뜨겁게 實踐한 實證인 것이다.

事實 칼빈의 教育思想을 論함에 있어서 그가 確固한 教育思想을 정립했다고 보기 보다는 教育實踐家로서 팔목할 만한 位置를 占한다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理由는 칼빈自身은 自己를 언젠가 聖經을 가르치는 教師로서 이야기 하므로서 그 以上 다른 어떤 概念을 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의 방대한 저서속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教育思想을 깊이 檢討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主 著書인 綱要가 그 中心이 될 것이다.

393) Ibid.

394) Ibid., p.290.

395) Ibid., p.354.

396) F. Gaebelcin: op.cit., p.39.

397) BB. Warfield: op.cit., p.23.

또한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한 그의 實踐上에서 오는 教育思想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칼빈은 그의 教育思想을 實行하여 나감에 있어서 3가지의 進歩的인 特徵이 있었다.³⁹⁸⁾

- (1) 수사학을 使用하기 前에 신중한 文法的 演習이 있었고,
- (2) 母國語(仏語)의 重要性和 實質的 算術에 重要성을 두었고,
- (3) 敎會지도자 訓練과 같이 市民訓練에 重要성을 둔 點이다. 그러므로 教育은 公共行政의 安全과 基督敎의 損傷없는 保持와 사람들간에 人間性的 維持를 爲해 必要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活動 처음부터 學校教育의 根本的 重要성을 個人과 社會生活에 있어서 宗教의 促進을 爲한 그리고 藝術과 科學에서도 마찬가지로 學生의 訓練을 爲한 道具로 보았던 것이다.³⁹⁹⁾

실제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提供된 教育도 많은 面에서 人文主義的이었으며, 聖經과 神學에 덧붙여서 敎養科目도 強調했던 것이다.

칼빈은 聖經을 하나님의 權威的 啓示로 간주하면서도 계속하여 權威있는 異邦作家를 참조했다.⁴⁰⁰⁾

그러면 칼빈의 教育에 關한 재료와 첫째로 그原理와 思想을 明確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7개의 主要質問에 答辯하여야 할 것이다.⁴⁰¹⁾

398) J.Chr.Coetzee:op.cit., p.201.

399) Ibid.

400) E.Towns:op.cit., p.172.

401) Ibid.

- i) 教育의 基本은 무엇인가? (What is the Foundation?)
- ii) 教育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the educand?)
- iii) 教育의 目標은 무엇인가? (What is the aim?)
- iv) 教育의 主題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ubject matter?)
- v) 教育의 方法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ethod?)
- vi) 教科目은 무엇인가? (What is the discipline?)
- vii) 學校教育의 組織문제 (What is the Organization of school education?)

위의 質問을 하나하나 檢討함으로써 우리는 칼빈의 教育觀을 보다 깊게 確實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 칼빈의 教育思想의 基本은 무엇인가?

1538年の Genevan Gymnasium이라는 계획에서 그는 分明하게 모든 敎育의 基礎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칼빈이 追求하는 基督教 敎育의 토대를 形成한다는 것이다.⁴⁰²⁾

하나님의 말씀은 人間이 이 지구상에 存在하는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先知者들에게 啓示된 것으로 聖文書나 聖經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聖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聖經은 하나님의 權威를 나타낸다. 칼빈은 聖經의 根本的 權威가 人間 삶의 全 領域에서 受納되므로 敎育의 領域도 이에 例外일 수 없다고 보았다.⁴⁰³⁾ 聖經은 啓示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402) Ibid.

403) Ibid.

그러나 人間은 聖靈의 証憑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聖靈은 聖經의 權威를 완벽하게 세우기 爲하여 確認하는 것이다. 人間은 聖文書가 하나님 의 말씀의 선포라는 事實을 聖靈의 內的証憑를 통하여 認識할때 人間은 마치 하나님 自身에 依해서 宣布되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聖經의 神的 기원 때문에 聖經은 完全한 信任과 權威를 갖게 되는 것이다. 聖經은 完全하고 獨占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人間에게 絶對적으로 必要하고 必須不可欠하다. 그렇기 때문에 基督教 倫理의 最高·最終의 權威가 된다.⁴⁰⁴⁾ 그러나 罪人들인 人間이 이를 充分히 理解하기에는 困難하다. 이 말씀의 意味를 理解하기 爲해서 人間은 教育의 개발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聖經은 모든 基督教教育의 基礎이며 이 教育의 內容과 方法에 다른 그 무엇이 더 要求되지 않는다고 칼빈은 생각했다⁴⁰⁵⁾

ii) 教育을 받아야 할 사람은 칼빈은 누구라고 보았는가?

하나님의 全創造物 가운데서 人間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教育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다.

基督教 綱要에서 칼빈은 人間知識에 關한 문제에 特別한 注意를 주고있다. 教育은 人間에 關한 知識없이는 전혀 不可能하다고 보았다. 教育하는 者는 자기자신을 포함하여서, 피 教育자를 알아야 만 한다고 했다.⁴⁰⁶⁾

404) Ibid.

405) Ibid.

406) Ibid.

그러면 칼빈이 人間에 關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人間을 잘 教育시키기 爲해서 무엇을 알아야만 하겠는가? 人間지식에 關한 첫 부분은 人間이 하나님의 被造物이라는 事實이다.⁴⁰⁷⁾

人間은 全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義, 智慧, 善의 最高 피조물이다. 人間은 하나님의 形象(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人間지식에 關한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 被造物이 하나님의 命令에 不純從하여 罪에 떨어진 事實이다. 이로 말미암아 人間은 原狀態를 잃고 말았다.⁴⁰⁸⁾ 그러나 多幸히도 人間知識에 關한 셋째 부분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人間の 마음에 종교의 씨를 두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으나 백명 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하는자를 찾아 볼 수 없다. 人間지식에 關한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恩惠로 말미암아서 人間の 罪의 狀態에서의 구원이다. 人間の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究見할 수 있다.

人間 자신에게는 義도없고 善行도 없다. 믿음으로만 義로와 질 수 있고 이것은 靈魂의 役事로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이 人間지식에 죄인들을 인도하는 可能性에 關한 教育質問에 對한 最終答辯이다. 이것은 教育의 必須要件이다.⁴⁰⁹⁾

被教育者를 教育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人間の 타락후에도 얼마간 하나님의 形상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iii) 칼빈이 追求한 教育의 진정한 目標은 아동들을 基督教生活

407) Ibid., p.215.

408) Ibid.

409) Ibid.

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의 實踐은 信者들이 自身을 하나님께 獻身하며,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경배이다. 생각, 말, 명상, 기타 모든것이 하나님의 榮光을 為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榮光이 人間生活의 最終目標이며, 人間教育의 最終目標이다.⁴¹⁰⁾

하나님의 榮光은 하나님의 지식의 目的이며 이 하나님에 關한 지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完成된다. 하나님께 예배에서 基本은 심각한 경외(두려움)이다.⁴¹¹⁾

하나님의 榮光은 人間이 하나의 기독교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人格的 거룩을 포함한 義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基督人의 삶의 要約은 自己否定이다.⁴¹²⁾

Geneva Program(1538)에서 칼빈은 宗教教育 못지 않게 一般教育을 重視했다. 教養學科는 하나님의 지식을 充分히 알도록 도우니까 말이다. 칼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션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確固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正當한 原則에 根拠를 두고있는 이러한 藝術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 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藝術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利益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⁴¹³⁾

410) Ibid.

411) Ibid.

412) Ibid., p.217.

413) E.Towns:op.cit., p.217.

一般教育도 最終目標은 하나님의 榮光인 것이다.⁴¹⁴⁾

(iv) 그러면 칼빈의 教育에 關한 主題는 무엇인가?

基督敎 綱要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칼빈은 教育의 主題로서 두가지 種類의 知識을 區別하였다. 하나님에 關한 知識과 人間에 關한 知識이다. 칼빈은 이 두 知識을 分明하게 區別하였는데 人間에 關한 知識은 하나님에 關한 知識에 根拠한다고 보았다. 人間은 오직 하나님의 存在안에서만 自身의 모습을 窺見케 된다고 하였다.⁴¹⁵⁾

칼빈은 하나님에 關한 知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에 關해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도한다고 말했다.⁴¹⁶⁾

人間知識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시는 창조세계와 성경은 통하여 人間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였다.⁴¹⁷⁾ 그러므로 教育의 主題로 두 개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聖經과 自然에 啓示된 創造主에 關한 知識과 創造主가 世界政府를 形成하여서 그것으로 人間에게 계시하신 創造에 關한 知識이다. 그래서 칼빈은 敎育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宗教敎育과 世上敎育인데 神學自体에 關한 가르침과 一般學問에 關한 가르침이다.⁴¹⁸⁾

414) J.Chr.Coetzee:op.cit., p.217.

415) Ibid.

416) Ibid.

417) Ibid.

418) Geneva Leges (1559년)에서 이와같은 사실이 보다 잘 나타나 있다. Coetzee,op.cit., p.218.

(v) 칼빈의 教育方法論 문제에 關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綱要를 깊이 研究하여 보면 이에 대한 어떤 重要한 原理들을 發見할 수 있다.⁴¹⁹⁾

첫째로 창조주 자신이 우리 人間들을 靈肉間不完全한 상태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기 爲한 教育의 一般的인 方法들이 있다. 罪人을 重生시키는 聖靈의 役事요, 聖經과 自然에 나타난 하나님 思想과 意志에 關한 하나님의 啓示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事實, 아버지 하나님의 攝理的 은혜며 人間の 召命과 예정에 關한 重要事實이다. 聖靈의 使役없이는 聖經과 自然에 關한 하나님의 啓示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人間の 召命과 예정의 事實이 없이는 教育이 不可能하다고 칼빈은 보았다.⁴²⁰⁾

둘째는 教育의 一般的 方法에서 人間 자신에 의해서 使用되는 것이었다. 教師, 父母 그리고 自身에 依해서 成長하고 發展을 爲한 方法으로서 利用되는 人間の 限界內에서의 方法이다. 이러한 方法으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믿음, 自己否定, 기도, 묵상, 善行 등이다. 教師前에서 이와같은 것이 없다면 참된 教育은 不可能하다.⁴²¹⁾

소위 教育의 特別方法으로서 칼빈은 뚜렷한 것이 없다. Genevan Leges 에 보아도 교수는 강의를 하고 學生들은 자습의 方法을 배우고 산문作成, 公開發論 등의 方法뿐이다. 大學과 Gymnasium 에서의 主要方法도 文法연습 암기, 발표, 토론등이다.⁴²²⁾

419) Ibid.

420) Ibid.

421) Ibid.

422) Ibid., p.219.

(vi) Calvin에게 있어서 教科目인 訓練(discipline)은 教育理論과 教育實際로서 매우 重要的인 역할을 한다. 初期 Church Articles에서 칼빈은 父母가 子女를 學校에 보내지 않으면 벌을 내렸다. Genevan Leges에서는 教師와 學生의 訓練은 規則的이었고 만약 교회나 학교에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도록 했다.⁴²³⁾

그러나 訓練에 關한 理論은 그가 道德法을 討論한 基督教 綱要에 나타나 있다. 權威와 自由는 訓練理論에서 두개의 主要문제이다.⁴²⁴⁾

權威에 關한 문제는 綱要 2권 8장에서 칼빈이 充分히 取扱하고 있다. 道德法은 하나님에 關한 지식과 人間에 關한 지식에 필수 조건이다. 主님은 自身을 合法的 權威者로서 要求하시며, 人間에게 自己의 神性을 정의하도록 要求하시며, 主님의 義의 規則을 공포하도록 要求하신다. 主님은 우리에게 無力함과 不義함을 깨우치신다. 人間의 마음속에 심겨진 內的法로 우리가 無力하고 不義하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成文法이 必要하다.⁴²⁵⁾

權威에 關한 칼빈의 견해는 ① 하나님만이 唯一한 絶對의 權威이며, ② 하나님이 人間에게 이 權威를 委任했다는 것과 ③ 人間은 하나님께서 委任하신 이 權威를 行使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⁴²⁶⁾ 여기에서 자연히 기독교인의 自由 문제가 등장한다.

423) Ibid.

424) Ibid.

425) Ibid.

426) Ibid., p.221.

완전한 교육을 받았다.⁴³³⁾ 이상에서 檢討하여 본 칼빈의 교육사상은 그의 敎育哲學 및 敎育神學의 근거가 되었으며 제네바에서 그의 敎育적 노력을 형성시켰다.⁴³⁴⁾

2. 칼빈의 敎育神學內容

A. 聖經: 敎科書로서의 聖經⁴³⁵⁾ 칼빈은 自身의 神學뿐 아니라 敎育의 實踐에 있어서 오직 聖經에만 依存했으며 根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福音的 神學者' (evangelical theologian) 라는 表現이⁴³⁶⁾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Cunningham은 말하기를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敎訓하신 바에 對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하여 充分하고도 正確하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提示했다고 했다.⁴³⁷⁾

이와같이 聖經은 칼빈 자신에게 있어서 敎科書였다. 이 敎科書인 聖經에서 各樣의 寶物을 깨어냈던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헛되거나 無用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무엇이나 배워야 한다'고 했다.⁴³⁸⁾

聖經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敎科書인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더욱 부연하여서 말하기를 '聖經은 聖靈의 學校로서 그 안에

433) Ibid.

434) E.Towns:op.cit., p.174.

435) T.H.L.Parker:op.cit., p.52.

436) P.De Jong:op.cit., p.172.

437) W.Cunningham:op.cit., p.296.

438) Comm.on Rom.15:4.

는 알아야 하고, 有用하고 必要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알아야 할 重要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439) 고 했다. 그러면 教科書인 聖經의 內容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關한 知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分明하게 보여주는 빛나는 거울' 440) 이라고 그는 理解했다.

'人間의 精神은 無力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知識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441)

칼빈은 그 內容을 좀더 具體化시켜서 말하기를 '聖經은 단지 우리의 生活을 그 創始者요 또 그것을 류고 있는 하나님께 屬해야 할것을 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創造主의 根源과 創造때의 原狀態로부터 타락하였다는 것을 가르친 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感惠가운데 하나님께 和解되게 하여 그리스도를 模本으로 우리앞에 세워 주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의 形象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442) 결국 創造主이시며 구속주이시며 世界의 主人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43) 이와같은 聖經의 內容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聖經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444) 이 聖經의 제자는 聖靈을 통하여 聖經인 教科書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聖經은 다만

439) Inst. III xxi ③.

440) Ibid., I. viii ⑦.

441) Ibid., I. vi ①.

442) Ibid., III. vi ③.

443) T.H.L.Parker:op.cit., p.53.

444) Inst., I. vi ②.

科學的 教科目을 가르치시는 方法으로 가르치실 뿐아니라 그 內容을 우리의 心情으로 느끼게 하며,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理解할 뿐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믿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에 몸을 맡길 사람은 그 지식을 困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⁴⁴⁵⁾

그 學校 學生이나 先生의 性格을 보아 그 學校의 학생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聖經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언제나 그 표를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⁴⁴⁶⁾ 칼빈은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說教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학생이 그 학교에서 한 지체로 되고 先生이 또한 좋은 教師라면 그 학생이 그 先生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할 뿐아니라, 그 先生의 性格도 어느 정도 닮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느 학교에 다녔다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⁴⁴⁷⁾

이제 事實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가야할 곳은 성경의 학교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 도움을 받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⁴⁴⁸⁾ 그래서 칼빈은 主禱하기를 '人間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녕에 어찌나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선뜻 각종 오류 가운데 기울어지는지, 신기하고 허망한 宗教따위를 때때로 날조하고저 마음을 먹게 되는지를 우리가 음미해 본다면 우리가 등한하기 때문에 亡

445) T.H.L.Parker:op.cit., p.54.

446) Ibid.

447) Ibid.

448) Ibid.

하거나 또는 오류가운데 빠져 소멸되거나 혹은 人間들의 방자하고
 뻔뻔스러운 것 때문에 타락되지 않게 하기 爲하여서는 이와같이
 하늘로부터의 証文文書가 필요했다'고 하였다.⁴⁴⁹⁾ 또 그는 말하
 기를 '성경은 마치 시력이 어두운 老人이 책을 分明히 읽기 爲
 하여 쓰는 안경과 같아서 하나님께 對한 지식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고 했다.⁴⁵⁰⁾

그러던 教育神學的 문제로 어떻게 이 教科書인 聖經이 善適的 權
 威를 갖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 適用 (Applicability)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聖經의 完全性 문제도 發生하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칼빈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성경의 저자는
 眞實하시다'라고 ⁴⁵¹⁾ 못박음으로써 教科書의 權威를 神의인 데다
 두었다. 이에 대한 追加的言及에서 '聖經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證明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
 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야말로 믿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했다.⁴⁵²⁾ 다른 곳에서 또 이르기를 '分明히 를 한방을
 만큼이라도 公明한 稜치를 아는 솔직한 사람이라면 누가 복음
 1 장을 읽고나서 부끄럼을 禁할 수 없었으리라' 계속해서 '이들
 성귀들은 뜨겁게 단 쇠처럼 그들의 양심을 짓을 것이요 그들의
 조소를 억제해 버리고 말것이다' ⁴⁵³⁾ 고 強力하게 力說했다.

449) Inst. I.vi. ③.

450) Ibid., I.vi. ①.

451) Ibid., I.ix. ②.

452) Ibid., I.viii. ⑬.

453) Ibid., I.viii. ⑭.

이와같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聖靈하나님의 內的照明을 통하여 확실한 것이다. '나는 聖靈의 証拠는 理性보다 우위에 있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証人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聖靈의 內的인 証拠에 의하여 印쳐지기 전에는 人間들이 마음속에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칼빈은 말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기까지는 의혹의 바다에 빠져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성령은 保證人이요 擔保' (고후1:22) 라고 했다.⁴⁵⁴⁾

教科書인 聖經은 이르 브전데 普遍的 權威를 갖음을 알게 되며 그의 完全性에 받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Byrne은 이 教科書를 예리하게 分析하면서 ① 聖經은 학생들의 마음과 精神面에 靈的 開發을 시켜주며 ② 教育課程에 가장 中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본적 요인은 人間과 기독교인의 경험을 表明하는 歷史的 기록을 구비시킨 그 事實에다 기초를 마련하여 주기 때문이다. ③ 聖經은 文學的 가치가 있다. ④ 聖經을 基盤으로 하는 큰 이유는 相互的이고 綜合的이 될 수 있는 教育課程을 공급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기초를 두는 까닭이다.

⑤ 성경이 기독교 교육의 원천이 되는 理由의 마지막은 성경은 사람들과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固有하고도 豊富한 量이 있기 때문이다.⁴⁵⁵⁾ 聖經을 教科書로 理解한 칼빈에게 신구약 성경

454) Ibid., I.vii. ④.

455) HW. Byrne: op.cit., p.231.

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재판 (Crown) 이자 規範이었다.⁴⁵⁶⁾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벨라나 로마의 작가들이 이 세계에 闕해 많은 것을 배웠으나 이것이 성경에 제시된 참되고 구원하는 하나님에 闕한 지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결국 '성경없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⁴⁵⁷⁾

B. 三位一體 하나님

1) 聖父 하나님 : 教師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世上을 形成하신 것 같이 그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의 지혜로써 다스리시고 그의 은혜로써 보존하시며 特히 公義와 심판으로 인류를 주관하시고, 자비로 용서하시고 보호로써 방비해 주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과 지혜와 공의와 권능, 정직 참된진리 어느 하나라도 극히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일을 그로부터 바라고 구하여 무엇이든지 받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함으로써 은혜를 보답하는 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完전한 권능을 갖고 제심으로 우리의 '알맞는 教師' (a fit teacher) 로써 경전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경전심을 불어 일으켜 주기 때문이다.⁴⁵⁸⁾

456) E.Towns:op.cit., p.174.

457) Ibid.

458) Inst. I.ii.①.

칼빈은 하나님을 教育的 義味에서 教師로 理解하였다. 實際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죄와 허물을 다스리는 '심판자'로 알고, 많은 예배에서 보듯이 自由와 기쁨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써 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⁴⁵⁹⁾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教師' (educator)로 '先生' (teacher)으로 보고 싶다.⁴⁶⁰⁾

우리가 하나님의 父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必須적으로 가르친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경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教育的 充分하고도 깊은 意味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例証을 통한 가르침과 模倣을 통한 배움은 教育을 理解하는데 中心되는 要素이다.⁴⁶¹⁾

아버지가 아들에게 同一하게도 아주 깊은 意識的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重要的지 모른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教師로 先生으로 理解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이다.⁴⁶²⁾

신약이나 구약에는 하나님을 교사로서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 욥도 물기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욥 36:22)고 하였다. 이와같이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교사로서 생각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459) Nels F.S Ferré: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Westminster Prees, 1967. pp.104-105.

460) Ibid., p.106.

461) Ibid.

462) Ibid.

배웠기 때문이다.⁴⁶³⁾

그러면 하나님은 教師로써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한마디로 契約하자면 自身の 完全한 權能이다.⁴⁶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지혜에 의하여 그가 하시고저 하시는 일을 작정 하셨고 지금은 그의 권능으로 그가 작정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신봉하는 것이다'⁴⁶⁵⁾ 즉 '하나님께서 만사를 최선의 경륜을 따라 정리하시고 다스리신 다는 것'⁴⁶⁶⁾ 을 가르침의 內容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다. 事實 하나님의 創造自体가 바로 하나의 教育課程인 것이다.⁴⁶⁷⁾ 하나님께서는 創造가 人間에게 하나의 學校가 되도록 계획하셨다.⁴⁶⁸⁾ 하나님은 教育하고자 창조하셨으며, 창조는 교육의 한 手段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創造者라는 意味보다는 教育者라는 意味가 더 重要하다고 하겠다.⁴⁶⁹⁾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창조의 역사는 수많은 밝은 등불을 켜서 創造主의 榮光을 비추어 주고 있다'⁴⁷⁰⁾ 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方法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저들이 이전에 보았던 것을 잘 성찰하는 일을 도와주고 듣기만 하

463) 김관석: 기독교교육서론,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9. p.47.

464) Inst. I.ii. ①.

465) Ibid., I.xvi. ⑧.

466) Ibid., I.v. ⑧.

467) N.Ferré:op.cit., p.110.

468) Ibid., p.111.

469) Ibid., p.112.

470) Inst. I.v. ⑭.

던 일을 이해하게끔 도와주신다. 배우기를 거절한 자들을 단련시키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지혜로 보상을 하며, 이해를 하는 자에게는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고 무식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신다.⁴⁷¹⁾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人間社會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의 섭리의 과정을 확정해 놓고 매일같이 명백한 계시를 통하여 만민에게 무수한 수단을 다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되 의인에게는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나 악하고 모독적인 자에게는 그의 엄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롬 11:22) ……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죄인들을 자비로서 끈덕지게 추적하여 드디어는 그들의 죄악을 삼켜버리고 父母의 애착이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 주신다'고 했다.⁴⁷²⁾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方法은 하나님의 撰理과정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실을 알게된다. 敎師이신 하나님은 特別히 환란가운데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는데 인내와 온유로 우리를 연단시켜시며 (요셉·다윗·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기력을 차버리고 회개하도록 분발시키는 교수 方法을 使用하신다.⁴⁷³⁾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큰 위로를 주신다. 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된다. ② 만사가 경전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 ③ 만사를 위한 人間の 마음과 노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④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의 안전을 언제나 보살펴 준다. 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각별히 보호해 주신다.⁴⁷⁴⁾

471) 김관석 : op.cit., p.47.

472) Inst. I.v. ⑦.

473) Ibid., I.xvii. ⑧.

474) Ibid., I.xvii. ⑥.

이로 말미암아 우리 人間은 ①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경의 하여야 하며 ② 하나님께 전심전력 신뢰하여야 하며 ③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생명과 꾸밈없는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④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⁴⁷⁵⁾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배우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그는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의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거듭전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엡 4:18) 라고 하였다.⁴⁷⁶⁾ 칼빈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칼빈의 삶의 빛이던 쉼이었다.

하나님의 完全하신 美과 全能하심은 칼빈의 모든 사고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원리였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父性愛的 사랑의 지식에서 요약된다.⁴⁷⁷⁾ 이제 이 點을 마무리지으면 다음을 다시 확실하게 해답이 必要하겠다.

하나님은 分明히 裁로우셔서 罪를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판자이시다. 그러나 재판자로서 결코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적인에게 친구가 되신다. 關心을 갖고 최대한으로 돕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판자이시면서 교육자이시다.⁴⁷⁸⁾ 教育神學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규정짓는 일에 게을리

475) Ibid., I. x. ②.

476) 김관석 : op.cit., p.48.

477) A.Hunter:op.cit., p.49.

478) N.Ferré:op.cit., p.108.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가르치실 뿐 아니라 事實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또 하나님이 교사라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은 罪를 선포하고 다스리시는 재판자로서 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教育神學을 定立키 爲한 主要課題는 교사로서의 하나님이 人間에게 가장 重要한 意味가 된다는 事實을 보여주는데 있다.⁴⁷⁹⁾

2) 聖子 하나님 :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

聖子로서의 그리스도는 不變의 주제가 된다. 聖子格은 永遠한 地位인 것이다. 그러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과 죽음이라는 事實과 特別히 關係된 名稱이다. 그러나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창조의 完全한 教育的 과정의 중요한 의미가 배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의 삶의 의미심장한 더욱 중요한 이해가 우리를 위하여 되어드록 하는 것이다.⁴⁸⁰⁾

事實 모든 사람이 다 허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세주라고 할찌라도 역사적 聖子로서의 그리스도에 對한 보다 넓고 깊은 주제는 모범자라는 것이다.⁴⁸¹⁾ 그러므로 聖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배운 첫 모범인 것이다.⁴⁸²⁾

479) Ibid., p.109.

480) N.Ferré:op.cit., p.114.

481) Ibid.

482) Ibid., p.115.

칼빈은 모범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속론적 입장에서 說明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his first-born)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른 자녀들에게 까지 적용시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자녀들에 으뜸가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마 3:17, 17:5) 이 세상에서 방종하거나 또는 안락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십자가를 졌을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계속적인 십자가 연속의 생애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도는 그 이유를 「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증함을 배워서 했다 」 (히 5:8) 고 들고 있다.⁴⁸³⁾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구원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 하나님께로 부터 나오는 」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에 의해서 얻게 된다고 배운다.⁴⁸⁴⁾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存在의 意味와 창조의 目的과 그의 삶과 세상을 向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가?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의 모범자가 되었는가?⁴⁸⁵⁾

人間의 不順從으로 因한 人間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咎을 허시고 자 자신의 신성을 「 육신의 너울 」 (veil of flesh) 속에 감추고 나타나신 참인간이란 事實로서 立證시켰다.⁴⁸⁶⁾ 칼빈은 이 事實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통된 본성을

483) Inst. III.viii. ①.

484) Ibid., II.xvi. ①9.

485) N.Ferré, op.cit., p.116.

486) Inst. II.xiii. ②.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가 있다는 보증
 이요, 그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죽음과 죄를 같이 정복함으로써
 승리와 개선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즉 그는 우리로부터 취
 하신 육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상
 행위르써 씻어 버리고 아버지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케 하는 것
 이다. 487) 그러므로 하나님의 公義를 滿足케 하시는 모범자르써의
 그리스도를 묘사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범자가 되었으며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산 증거가 되는 것
 이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쓰기를 '성부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신
 데 성자안에서 유한하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기 때문이었다.' 488) 고 하였다. 그러면 이 모
 범자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
 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489) 오신 것이다.

이와같이 하늘에 계신 의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인 만큼 어떤 자는 더 경한 치료를, 어떤
 자는 더 심한 치료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데 그렇다고 아무도
 제외되지 않고 또 소외되는 일이 없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90) 그렇기 때문에 모범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모범자는 구속 (redemption), 대속물 (ran-

487) Ibid., II. xii. ③.

488) Ibid., II. vi. ④.

489) Ibid., II. xii. ④.

490) Ibid., III. viii. ⑤.

som) 및 화해 (propitiation) 를 위해서 491) 십자가를 지시는
본을 보이셨다. 왜냐하면 不義로 困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서는 이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492)

이 십자가의 必要性은 ① 우리가 본질상 너무나도 만사를 血肉
에로 기울어질 경향이 있으므로 교만을 격기 위하여 ②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③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기 위하여 493)
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教育的 의미는 忍耐力을 키우도록 하며
順從을 배우도록 한다고 494) 칼빈은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의 전 과정, 즉 모범자로서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對立關係를 철폐하여 義를 획득토록 한
것이다. 495) 그의 죽으심으로 罪는 제거되고 그의 부활로써 義는
다시 살아나 회복된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
25) 496) ' 우리는 그의 부활이 우리들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가
장 실질적 보증 ' 497) 이라고 칼빈은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모
범자로서 실질적 보증자가 되심을 주장한 것이다.

십자가, 죽은, 지옥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498) 그리스

491) Ibid., II. xvi. ⑥.

492) Ibid.

493) Ibid., III. viii. ②.

494) Ibid., III. viii. ③ - ④.

495) Ibid., II. xvi. ⑤.

496) Ibid., II. xvi. ⑩.

497) Ibid.

498) Ibid., II. xvi. ⑪.

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을 준 모범이 되었다. 그 유익은 ① 아담때 부터 계속 말혀있던 하늘나라에 들어갈길을 개통해 주셨다 (요 14:3, 엡 2:6) 는 것과 ② 아버지 보좌에로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심 (히 7:25, 9:11-12, 롬 8:34) 과 ③ 신앙은 그리스도의 힘을 이해하는데 이 능력안에 우리의 강함, 힘, 도움 및 음부를 이기는 영광이 있는 것이다. (엡 4:8)⁴⁹⁹⁾

그러므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므로써 그의 육체적인 임재는 우리들 육안으로 부터 거두워갔지만 (행 1:9) 그것은 신자들이 지상순례 생활동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⁵⁰⁰⁾

승천으로 말미암은 모범자의 길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의 부관 (Fathers deputy) 으로 일을 하시므로⁵⁰¹⁾ 그 밑에 지배의 전권이 있음을 確固하게 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를 再整理하여 보고자 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잘 要約했다.

"우리가 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지배 가운데서, 순결은 그의 잉태 가운데서, 그 사죄는 그의 탄생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구속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의 고난가운데 있었고, 만약 저주로부터의 면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요 (갈 3:13) 또 그의 만족은 그의 희생제물에; 그의 정

499) Ibid., II. xvi. ⑬.

500) Ibid., II. xvi. ⑭.

501) Ibid., II. xv. ⑤.

결은 그의 피에 있으며, 또 화복은 그의 음부에 내려감에 육신의 죽음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신생은 그의 부활에 있는 것이요. 또 불사의 삶을 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활에 있는 것이다. 또 하늘나라 기업을 구하면 그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에 있으며, 보호와 안전과 모든 축복의 동성한 활용은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이요, 만약에 심판에 대한 근심없는 기대를 구한다면 그것은 심판할 권을 주신 그의 권능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이 그안에 충성하게 축적되어 있으니 만큼 우리는 다른 곳으로 부터가 아니고 이 셈으로 부터 차도록 마셔야 할 것이다.⁵⁰²⁾ 우리는 이상에서 구속과정속에서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자가 되심을 살펴본 것이다.

3) 聖靈 하나님 : 가정教師로서의 聖靈

만일 그리스도가 모범자이라면 教師로서의 하나님의 배경속에서 聖靈을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聖靈을 內的教師 (the inner teacher) 라 하고, 그 힘이 우리의 精神가운데 구원의 約束으로 침투되는데 그 約束은 이것 없이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또 우리 귀를 두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엡 1:13)⁵⁰³⁾

여기서 칼빈은 聖靈을 內的教師 즉 가정教師로 해석한 것이다. 教育的인 面에서 그를 가정교사로 본 것이다. 이 가정교사는 구원의 約束을 우리에게 確實하고도 確固하게 되도록 하여 주는 분

502) Ibid., II. xvi. ⑩.

503) Ibid., III. i. ④.

이다. 그러므로 聖靈은 信仰의 始動者이신 것이다.⁵⁰⁴⁾

이와같이 '神的教師' (Divine Teacher)인 聖靈⁵⁰⁵⁾의 使役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有效하게 結合시켜 주기위한 끈인 것이다.⁵⁰⁶⁾

聖經上 聖靈의 명칭에 52가지나 있으나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았다. 바울은 말하기를 '단일 너희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롬 8:9) 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이가 너희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는 아주 새롭음을 입은 소망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⁵⁰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우리도 '그리스도에 접붙임이 되도록' (롬 11:17) 또 '그리스도로 옷입도록' (갈 3:27) 그 질을 인도하여 주는 고마운 가정교사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같은 성령에 연합된 것 때문만이 아니고 증보자로서의 그의 직분 때문에도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다.⁵⁰⁹⁾

504) Ibid., III. ii. ③.

505) Lois E. LeBar: "Curriculum", An Introduction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ed, Edward J. Hakes, Chicago: Moody Press, 1968, pp.86-95. p.87.

506) Inst., III. i. ①.

507) Roy B. Zu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p.25.

508) Inst. III. i. ②.

509) Ibid.

칼빈은 그래서 '성령의 固有目的으로서 그는 그가 입으로 가르쳐 준 것을 마음에 떠 오르게 해서 인식시키는 것에 돌리고 있으니 그 이유는 만약 분별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빛을 맹인에게 헛되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인 때문이다' (롬 20:3)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요 (계 3:7) 그의 비취심을 우리 정신의 안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⁵¹⁰⁾ 성령을 열쇠로, 안광으로 開解함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도록하는 보조역할 즉 가정교사로서의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된다. . 성령은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선동자라고⁵¹¹⁾ 해서 좋을 것이다. 모든 교육의 뒤에는 성령의 선동함이 있다.⁵¹²⁾

성령이 가정교사인 곳에서는 하나님에 關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된다.⁵¹³⁾ 즉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⁵¹⁴⁾ 그러므로 성령의 비취심이 없이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⁵¹⁵⁾ 칼빈은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福音 안에서 信仰의 빛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또 증생케 해주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다' (고후 5:17)하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세속적인 불가결로부터 정결케 해주어

510) Ibid., III. i. ④.

511) N. Ferré: op. cit., p. 141.

512) Ibid., p. 144.

513) R. Zuck: op. cit., p. 31.

514) Inst. III. i. ②.

515) Ibid., III. ii. ③.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殿으로 살아 주신다' (고후 3:16-17, 6:19, 6:16, 엡 2:21) 고 했다.⁵¹⁶⁾ 성령이 있는 곳에는 새로움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결코 살인, 간음, 술취함, 교만, 쟁투, 탐욕, 기만 따위의 보호자가 아니고, 사랑과 근신과 절제, 화평, 온전과 진실의 창시자인 것이다. 또 이 가정교사는 옳은 것과 부정사이에 조급하게 곤두박질해서 돌진하는 현 자도 아니고 지혜와 충명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正과 不正을 올바르게 분별해 주는 것이다. 성령은 방탕한 채 고삐없는 방종으로 자극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분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절도와 중용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분이다.⁵¹⁷⁾

성령의 이 모든 教育的 임무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結論的으로 성령은 가정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충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 및 주님께 關한 경외심을 베푸시며, 진리를 전해서 적용시키고 모든 학습 환경중에 도와주시며, 영적인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에 關한 지식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⁵¹⁸⁾

C. 人間 : 學生으로서의 人間

하나님을 教師라고 한다면 人間은 배우는 存在이다. 卽 學生이라는 말이다.⁵¹⁹⁾ 칼빈은 綱要 제1권 제1장부터 제5장까지에서 하나님에 關한 知識을 論하면서 學生으로서의 人間이 배워야

516) Ibid., III. i. ④.

517) Ibid., III. iii. ⑭.

518) R.Zuck:op.cit., p.31.

519) T.H.L Parker:op.cit., p.52. 김관석: op.cit., p.51.

할 바는 하나님에 關한 知識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에 關한 知識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두가지의 길을 提示했다. 그 하나는 일반 啓示이며⁵²⁰⁾ 또 하나는 特別啓示이다.⁵²¹⁾

칼빈은 학습의 과정을 特別啓示에만 局限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일반 啓示의 理論을 發展시켜 創造와 撰理의 兩面으로 나누었다. 創造는 하나님의 智慧를 通하여 하나님의 永遠性을 보게 하며, 한편 撰理는 하나님의 能力을 通하여 하나님의 父性愛的인 자비와 恩惠를 깨닫게 한다. 이 兩者는 合一하여 하나님의 榮光개념을 구성한다고⁵²²⁾ 칼빈은 이해했다.

그러므로 學生인 人間은 먼저 하나님께서 創造하신 自然을 通해서 하나님의 榮光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창조의 역사는 수 많은 밝은 등불을 켜서 창조주의 榮光을 비추어 준다.'⁵²³⁾ 고 하면서 '창조의 하나하나의 役事에서 그의 틀림없는 榮光의 표 (unmistakable marks of his glory)가 새겨져 있으며 그것이 너무 分明하고 독특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아무도 비록 우둔하고 무식자일찌라도 무식해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어있다'⁵²⁴⁾ (시 104:2,3-4, 롬 1:20)⁵²⁴⁾ 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 우리가 눈을 돌리든지 우리가 보는 모든것은 하나님의 업적이란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경건한 명상으로, 무슨 目的으로 하나님이

520) Inst. I.v. ① - ⑩.
521) Ibid., I.vi-x.
522) BB.Warfield:op.cit., p.40.
523) Inst. I.v. ⑭.
524) Ibid., I.v. 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는 부
 언했다.⁵²⁵⁾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自然에서 우리가 배우
 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⁵²⁶⁾ 찬양하며, 자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榮光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⁵²⁷⁾ 決斷하도록 함이다.

다음으로 일반계시 가운데 撰理를 통하여 우리가 敎訓을 얻는
 바는 創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바와같이 하나님의 榮光인 것
 이다. 하나님의 撰理는 人間歷史속에 나타나며, 그속에서 教師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운다.

칼빈은 이에 言及하기를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울속에 자신과
 그의 영생천국을 明白히 보여주었다고'⁵²⁸⁾ 했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는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
 까지 자신의 지혜에 의하여 그가 하시고저 하시는 일을 작정하셨
 고 지금은 그의 권능으로 그가 작정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신봉하는것'⁵²⁹⁾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
 달을때 즉각적으로 그는 변함없는 주관자요 보존자라는 결론을 내
 려야 할 것이다.⁵³⁰⁾ 고 창조와 섭리의 不可不離性을 말했다.

그러나 배워야 할 人間은 이 가장 찬란한 극장 (most glorious
 theater) 가운데 있어서 이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도록.

525) Ibid., I. xiv. ②.
 526) Ibid., I. v. ②.
 527) Ibid., I. iii. ①.
 528) Ibid., I. v. ①.
 529) Ibid., I. xvi. ③.
 530) Ibid., I. xvi. ①.

되어있는 이상 그 눈을 진지하게 사용하며 그것들을 보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겠지만 더 나은 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特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⁵³¹⁾ 고 했는데 이는 特別啓示의 必要性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왜 人間은 特別啓示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학생인 人間 自身の 有益을 위해서이다.

배움의 存在인 人間은 創造의 産物이다.⁵³²⁾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人間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宗教的 실체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⁵³³⁾ 이 宗教的 存在 (being religious) 라는 말은 宗教的 意味에서 人生을 살아야 하며 또 살 수 있음을 뜻한다.⁵³⁴⁾ 우리는 人間이 하나님을 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며 또 人間存在의 가장 內面的인 핵심에 있는 人間の 內的自我 (inner self) 속에 하나님과의 宗教的인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事實을 안다.⁵³⁵⁾ 그런데 人間の 이 自我의 本質的 特色은 그것이 宗教的이라는 것 즉 奉仕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事實이다. 宗教는 단순한 依存感 (Abhängigkeitsgefühl) 以上の 어떤 것이다. 宗教는 존경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활동이다. 또 존경자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우리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자신을 내어맡긴 그 분에 대한 이러한 봉사, 이러한

531) Ibid., I. vi. ②.

532) Ibid., I. xv. ①.

533) J. Waterink: op. cit., p. 21.

534) Ibid.

535) Ibid., p. 22.

헌신을 인생의 실 생활에서 세가지 국면으로 나타낸다. 즉 인식, 복종, 통치의 세 국면이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가지 국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속하는 것이다.⁵³⁷⁾ 그러므로 人間은 모든 생물보다 뛰어나도록 탁월성을 주셨다.⁵³⁸⁾

人間이 犯罪하기 前 첫 상태는 이와같은 탁월한 것으로 특출했었는데⁵³⁹⁾ 시조 아담이 義의 원천을 버리고 난 이후 영혼의 모든 부분은 罪에 의하여 占領당하게 된 것이다.⁵⁴⁰⁾ '아담은 자기가 멸망하면서 우리까지 망쳐 놓았다 (롬 5:12)…… 따라서 바울이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엡 2:3) 라고 한 말은 그들 모두가 모태로부터 이미 저주 받지 않고 있다면 쓸 수 없는 말이 라' 고 칼빈은 力說했다.⁵⁴¹⁾

이 타락은 人間の '자아'가 다른 方向을 취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人間은 더 이상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피조물을 섬기며 자기자신을 즐겨 섬기는 것이다. 罪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目的을 상실하고 그럼으로써 宗教的 意味에서 墮落적으로 人間の 자아속에 나타나는 봉사에의 욕구는 잘못된 대상을 目的하게 된 것이다.⁵⁴²⁾ 이와같이 배움의 存在인 학생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깨달았을때 아무 소망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멸망뿐이라는 事實을 알고 좌절할 수 밖에 없으며 더 무엇을 배우고자 하

536) Ibid.

537) Ibid.

538) Inst. II.xii. ⑥.

539) Ibid.,I.xv. ⑧.

540) Ibid.,II.i. ④.

541) Ibid.,II.i. ⑥.

542) J.Waterink:op.cit., p.23.

는 의욕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教師인 하나님은 학생을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에 關한 지식중에서 特別啓示라는 方便을 使用하셔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提出하시므로써 人間은 더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환호를 터트리는데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속에서 들어온 은총 (grace) 을 안다. 543)

이것이 바로 人間の 몸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意義이며 意味이다.

그리스도는 生命의 창시자, 인도자 또는 生命의 主이신 것이다. 544)

우리의 구출을 위한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얻는 재생으로부터 되어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건실하고 순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분이기에 마지막 들켜 아담이라고 부른다. 545)

回復과 再生을 爲한 仲保者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범자로서 그의 순종의 전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對立된 關係를 剷絶하신 것으로 提示됐다. 546)

모범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피를 동반한 547) 십자가의 사건이다. 人間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榮光을 올리는 것을 배운다. 이 구주이신 모범자를 信仰하는에는 內的教師 즉 가정교사인 성령의 도우심 (照明) 이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칼빈도 '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결합시켜 주기위한 끈 ' 548)

543) Ibid.
544) Inst. II.xvii. ①.
545) Ibid.,I.xv. ④.
546) Ibid.,II.xvi. ⑤.
547) Ibid.,II.xvi.⑥.
548) Ibid.,III.i. ①.

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칼미암아 人間은 피조물에게 榮光돌리는 태도에는 죽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점점 성화되어 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⁵⁴⁹⁾ 이상에서 학생으로서의 人間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칼빈의 다음 말로서 배움의 存在인 人間이 追求해야 할 바를 結論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理性과 意志가 우리들의 계획과 行動을 支配하도록 하지 말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자. 反對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도록 하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行動을 다스리도록 하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생애 모든 분야가 우리의 유일한 법적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게 하자.'⁵⁵⁰⁾

'偉大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榮光만을 爲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 것이다.'⁵⁵¹⁾

D. 教會: 學校로서의 教會

우리는 이제 마지막 論題인 教會의 教育神學的 問題에 와있

549) J. Waterink: op. cit., p. 24.

550) Inst., III, vii. ①.

551) Ibid.

다. 앞에서 우리는 教科書로서의 聖經, 教師로서의 하나님, 模範者로서의 그리스도, 家庭教師로서의 聖靈, 그리고 學生으로서의 人間을 取扱했다. 그러면 敎회는 무엇으로 定義할 것인가? 學校로서의 敎會로 理解하는 것이 칼빈의 見解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나태한데다가 번덕스럽게까지 한 속성이 있는고로 우리의 마음에 信仰이 생겨난 후 그 信仰이 점점 돈독해 지는데에는 外部로부터의 도움이 必要한데, 552) 그 外部로부터의 도움이 바로 敎會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서는 聖務로서 어린 信者를 養育하시며 또한 그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 信仰의 目標에 다다를때까지 母性愛와 같은 배려로 그들을 기꺼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553) 敎會는 教育的 意味에서 學校로 理解되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파악한 학교로서의 敎會 思想이다. 우리는 칼빈이 이와같은 立場을 갖게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 必要가 있겠다.

칼빈은 그의 思想의 핵심부분에 敬虔, 즉 生活實踐을 強力히 要求하였고, 全人格的인 變化를 主張하였으며, 이 要求나 主張을 敎育을 통해 實現시켜 나갔는데 그 實現하는 곳의 中心이 바로 敎會이었던 것이다. 敎會는 訓練場이었다. 554) 敎會에 對한 칼빈의 見解은 '거룩'이라는 이름을 保留토록 이끄는 일이었다. 그래서 敎會의 第一차적이고 가장 重要한 일은 至高의 그리고 가장 순수

552) Ibid. IV. i. ①.

553) Ibid.

554) J.Mackinnon:op.cit., p.228.

한 도덕성을 갖도록하는 것이니 敎會가 바로 이러한 靈的인 일을 行하도록 하는 原動力이라고 보았다.⁵⁵⁵⁾ 그는 요 1:47 을 주해하면서 크리스찬을 定義하길 '하나님 앞에서의 誠實과 사람앞에서의 正直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했다.⁵⁵⁶⁾

이와같이 칼빈은 自身の 神學을 敎會라는 學校를 通하여 敎育이라는 方便으로(訓練의 意味) 實踐化시킨 것이다. 칼빈에게는 理論과 實際가 유리되지 않았으며 敬虔과 神學이 一致했음을 본다.⁵⁵⁷⁾

敎會를 通한 敎育 즉 訓練이 敎會의 主機能이 되는 事實은 칼빈의 다음 말에서 또 분명해진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欠點을 補強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셨다.'⁵⁵⁸⁾

學生인 人間은 아는 것이 매우 不足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學校인 敎會를 通한 敎育 즉 訓練을 通하여 成就토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칼빈이 理解한 訓練은 어떤 것인가? Philip Schaff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定義했다.

① 敎理의 混雜과 不敬에서 敎會의 保護 ② 사악으로 因한 腐敗로부터 敎人保護 ③ 犯法者들을 회개케하여 믿음의 生活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보았다.⁵⁵⁹⁾ 要約하면 敬虔을 보이는 일이다.

칼빈은 宗教自體를 觀念的이거나 概念的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存在를 믿는 것만으로 足하게 보지않고 그와같은 事實

555) Ibid., p.222.

556) Ibid.

557) 한철하 :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선거 400주년 기념 논문집, 한국 칼빈신학연구회. 1965.5. p.67.

558) Inst. IV.i. ①.

559) P.Schaff:op.cit., p.487.

로 학생인 人間이 무슨 有益을 얻게되며 具體的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무슨 變化가 있어야 갠는가까지로 實際化시킨 것이다.⁵⁶⁰⁾

이러한 訓練은 敎會가 行할바 主任務인 것이다. 學校인 敎會는 實踐을 잘 遂行할 수 있도록 訓練시키는 訓練場(Training Camp)인 것이다.

다음 칼빈은 敎會를 '信者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生命에 이르는 길은 단지 우리가 敎會의 母胎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여 그의 젖을 먹고 자라며 죽을 肉身의 몸을 벗고 천사처럼 되기까지 그의 인도와 保護를 받는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⁵⁶¹⁾ 라고 하면서 이어 '우리의 連약성은 우리가

아 어머니의 學校에서 떠나는 것을 許諾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의 學校의 學生인 것이다.

더우기 그의 몸을 떠나서는 아무도 赦罪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⁵⁶²⁾ 敎會라는 이 學校에서단 하늘의 恩寵을 맛볼 수있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므로 學生은 이 學校를 떠나지 말 것을 強力하게 要求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敎會의 訓練에 이어서 敎會의 權威에 言及한 것이다. 事實 칼빈은 다른 改革者들 보다도 한층더 敎會의 權威를 主張했다. 그가 '敎會가 信者들의 어머니'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Augustine의 영향을 보게된다. 敎會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560) 한철하: op.cit., pp.74-75.

561) Inst. IV. i. ④.

562) Ibid.

教會의 使役은 神的으로 그 本質을 이루고 있으니 信者들은 教會를 尊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教會의 權威는 教會的인 面에서 實質的으로 教會에 세워주신 牧師와 教師를 세우시고 (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自己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權威를 부여하시므로서 오늘도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⁵⁶³⁾

하나님께서서는 教會에서 訓練받는 學生들의 信仰의 單一性和 올바른 秩序維持에 진력하셨는데 그 例로 「聖禮典」을 무엇보다 먼저 制定하셨다.⁵⁶⁴⁾ 「聖禮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對한 信仰을 우리가 더욱 더 굳게 갖게하기 爲한 하나의 訓練인 것⁵⁶⁵⁾으로 理解했는데 結局 教科書인 聖經을 學生들이 보다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手段인 것이다. 「聖禮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效果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聖禮典이 그리스도를 아는 參與된 知식을 우리 가운데 기르며 굳게하고, 증가시키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充分하게 所有하도록 하며 또한 그의 慈惠의 豐盛함을 말아 누리는데 所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⁶⁶⁾ 學校로서의 教會에서 이 聖禮典은 學生인 人間에게 教科內容을 보다 確實하게 証據하는 証人인 것이다.⁵⁶⁷⁾ 동시에 우리의 無知와 弱點을 그리고 우리의 缺憾을 補完하여 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⁵⁶⁸⁾

그러므로 本來의 意味에서 말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견

565) Ibid. IV.xiv. ⑥.

566) Ibid. IV.xiv. ⑬.

567) Ibid. IV.xiv. ⑦.

568) Ibid. IV.xiv. ③.

고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하나님을 向한 信仰으로 굳게 서게 하는 것이다.⁵⁶⁹⁾ '聖禮典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信仰을 북돋아 주시고자 우리에게 對한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即치신 일이 外面的인 표적이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自身の 경건을 간증하는 일'이라고⁵⁷⁰⁾ 結論했다.

學校로서의 教會에 對한 칼빈의 이 말로 끝을 맺겠다.

'하나님께서서는 순식간에라도 그의 百姓을 完全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教會의 教育(訓練)을 通해서 그들을 (배움의 存在인 人間) 成長케 하시기를 원하신다'⁵⁷¹⁾

569) Ibid.

570) Ibid. IV. xiv. ①.

571) Ibid. IV. i. ④.

V. 結論 : 結言 및 提言

本人은 本論文에서 基督教 綱要에 나타난 칼빈의 神學思想을 먼저 살펴보았다. 칼빈의 神學思想은 그 出發點을 人間의 回心이나 稱義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絶對主權에 두었던 것이다.⁵⁷²⁾

그래서 그의 生活모토는 「모든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I give Thee all) 즉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I keep nothing back for myself) 라는 하나님께 처한 絶對的 主權 밑에서 一生을 헌신한 것이다.⁵⁷³⁾

이와 같은 ~~칼빈의~~ 하나님 中心思想은 그의 敎育思想에서도 強力히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創造秩序와 그의 攝理는 宇宙領域 그 어디에도 미치는 것이기에 이러한 思想下에서 定立된 그의 敎育範圍도 全 포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즉 敎會, 國家, 社會, 文化, 藝術, 科學이라는 領域도 칼빈에게는 敎育을 爲한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⁵⁷⁴⁾ 왜냐하면 하나님의 主權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神學과 敎育에서 共히 取했던 立場은 바로 하나님 中心思想인 것이다. 그의 敎育思想의 理論的 根柢인 神學에서 뿐만아니라 實踐의 場인 敎育에서도 하나님으로 부터 始作했다

572) 김득룡: 「칼빈주의적 무죄신학」 신학지남 166 호 (1974. 가을 호), pp.51~75. p.52.

573) A.Hunter: op.cit, p.5.

574) J.Waterink: op.cit, p.47.

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神學者로서의 動機와 教育者로서의 動機는 서로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신학은 진실로 基督教 信仰과 生活의 神學이었고, 그의 教育的 活動은 또한 그의 신학적 活動으로 表現되었던 것이다.⁵⁷⁵⁾ 그의 신학이 그의 실제적 사업에서 떠러지지 아니하였고, 한편 그의 실제적 사업은 그의 신학의 실제적 표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론과 실체가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⁵⁷⁶⁾

칼빈에게 있어서의 神學은 改革된 삶을 살도록 하는 引導者일 뿐으로 *思想은 삶의 侍女* 이어야 한다고 까지 생각했다.⁵⁷⁷⁾ 칼빈은 基督教 綱要를 써놓고 뒷짐만지고 있지 않았으며, 自身이 음으로써 自己가 쓴 敎理를 實踐한 것이다. 그래서 神學과 教育이 칼빈에게는 別個의 各各다른 領域이 아니었으며, 바로 이 둘의 合一된 概念과 그 實踐이 칼빈이 追求한 바이다.

그 表現된 바 實踐的 標本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인 것이다. 이곳을 통한 實踐은 宗教改革을 完成하는데 決定的인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神學을 理論的 基礎로 하여 實踐을 통한 教育을 함에 있어서 칼빈이 크게 마음에 두었던 것은 순수하고도 높은 道德性을 強調하는 것이었다.⁵⁷⁸⁾ 이것을 달리 表現하면 '경건'이라고

575) 한철하 : op.cit. p.67.

576) Ibid., p.68.

577) J. Mackinnon: op.cit., p.222.

578) P.Schaff:op.cit, p.263.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경전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知識이 없다」⁵⁷⁹⁾고 까지 하였다. 그는 또 「경전을 向한 첫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그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실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해 주시며, 다스리시며 키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데 있다.⁵⁸⁰⁾고 하여 「경전」의 문제도 오로지 하나님과의 對面關係 (Coram Deo)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이익도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要求하는 것들을 全的으로 추구하는데 精神을 돌리며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때문에 구한다」고 하면서⁵⁸¹⁾ 「偉大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榮光만을 爲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行動하기 爲해서 하나님께 別離되어 바쳐진 것이다」⁵⁸²⁾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 생애의 모든 分野가 우리들의 唯一한 法的目標인 하나님을 向해서 대진하게 하자」⁵⁸³⁾고 호소했다. 참말로 칼빈 자신은 하나님께 도취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 정신 그리고 生命은 하나님의 思想에 지배되었던 것이다.⁵⁸⁴⁾

579) Inst. I. ii. ①.

580) Ibid., II. vi. ④.

581) Ibid., III. vii. ②.

582) Ibid., III. vii. ①.

583) Ibid.

584) A. Hunter: op. cit, p. 49.

以上과 같은 칼빈의 神學과 敎育의 中心된 思想을 背景삼고 그의 敎育神學을 理解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關해서 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될줄 안다. 그 理由는 本 論文의 主된 源泉인 基督敎 綱要가 바로 하나님에 關한 敎理로 始作했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에 關한 知識이 칼빈神學과 敎育에 있어서 그 基礎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칼빈은 하나님을 父性愛的인 敎師로 파악했다. 多분히 新約的 分위기 보다는 舊約的 分위기를 느끼게 하는 嚴한 敎師로 우리에게 提示하고 있다. 이 敎師가 가르치고 敎訓하는 相對인 學生은 人間인 것이다. 學生인 人間은 人間의 生活全體가 하나님의 手中에 있으므로-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지 않는가? -人間的 한 순간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恩惠로 말미암아 지탱되며 하나님의 榮光을 지향하고 있다는 事實을 배워야 한다.⁵⁸⁵⁾

그러면 學生은 이것들을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가? 學校인 敎會에서, 聖經을 敎科書로 하여 배우게 된다. 勿論 칼빈은 배움의 곳을 꼭 敎會로만 局限시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家庭도 그 關心의 對象이었고 심지어는 제네바(Geneva) 政府自體까지도 하나님의 絕對主權이 行事되는 곳으로 알아서⁵⁸⁶⁾ 그곳까지도 學生이 배우고, 實踐하는 곳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髡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人間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仲係者로서

585) J. Waterink : op. cit, p. 120.

586) J. Mackinnon : op. cit, p. 164.

과악했는데 이를 教育神學的 立場에서 해석할 때 學生인 人間에게
는 十字架의 苦難을 몸소 擔當하셔서 人間의 罪와 苦를 代身
깊어지신 우리의 模範者로서 理解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는 代贖의 本을 우리에게 確證하셨기 때문이다. (빌 2:6-8) 聖靈
은 人間으로 하여금 이 事實을 보다 더욱 確實하게 理解하여 믿
도록 하기 爲해서 가정교사와 같이 人間內面에 깊숙히 役事하시던
시 模範者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榮華롭게 하도
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와같은 칼빈이 갖는 하나님 중심적인 教育神學을 우리의 現實
에 적응시켜 나가는데는 더 많은 理論의 定立과 具體化가 있어야
할 것이다. 事實 現實的 立場을 감안할 때 우리 改革主義의 教
育神學 確立이 가장 緊急을 要하는 문제라고 본다.

왜 그런고 하면 神學들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改革主義와 알미니안主義는 모두 新敎의 골
격안에 있으나 그 차이는 대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福音主義,
自由主義의 思想的인 차이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⁵⁸⁷⁾

(587) F.Gaebelin: op.cit, p.41.

参 考 文 献

* 英美文献

Benoit, Jean-Daniel, "Pastoral Care of the Prophet", John Calvin-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51-67.

Byrne H.W.,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67.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CC; Vol. xxi (c 1960, W.L. Jenki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Coetzee. J. Chr., "Calvin and the School",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197-226.

Cunningham. William, The Reformers and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9.

Dakin, A, Calvinism,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0.

De Jong, Peter Y,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2, No.2, 1967, Nov., pp. 162-201.

- Mackinnon, James, Calvin and Reformation, New York: Russell & Russell. Inc., 1962.
- Mason, Harold E., Abiding Values in Christian Education, Westwood: Fleming H. Revell Co.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1978.
- Parker, T.H.L. Portrait of Calvin, London: SCM Press, 1954.
- Polman, A.D.R, "Calvin on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Joh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97-112.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Grand Rapids : Eerdmans, 1969.
- Towns, Elmer L.,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1975.
- Warfield, Benjamin B., Calvin and Augustine, Grand Rapids: Baker, 1974.
- Warfield, Benjamin B., "Calvin and Bible", Selected Shorter Writing of Benjamin B. Warfield - I, ed., John E. Meeter, Nutley: Presbeyterian and Reformed Co., 1973, pp. 401-406.
- Waterink, Jan,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Eerdmans, 1954.

Wendel, Franc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 New York: London and Harper & Row Inc., 1963.

Zuck, Roy B.,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 韓國文獻

간하배, 『하나님 중심의 교육』, 교사의 벗 26호, 1967.6, pp.8~9.

김관석역, 기독교교육서론, 대한기독교교육협회편, 1979.

김득룡, 기독교 교육학 원론, 총신대출판부, 1976.

현대교육신학신강, 총신대출판부, 1979.

칼빈의 목회신학연구, 목회신학원, 『칼빈주의적 목회신학』 신학지남 166호(1974 가을호), pp.5~75.

김의환, 『칼빈의 성경관』 신학지남 152호(1971 봄호), pp.20~27.

김정준, 『성서학자로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1965.5, pp.34~64.

김형태, 기독교교육의 기초, 예장교육부, 1979.

박형룡, 교의신학제1권, 백합출판사, 1972.

신복윤, 『기독교강요: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배경(I)』, 신학지남 177호(1977 여름호), pp.37~46.

『기독교강요: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배경(II)』, 신학지남 178

호(1977. 가을호), pp.39~44.

『기독교강요:역사, 저작목적, 사상적배경(Ⅲ)』, 신학지남 179

호(1977. 겨울호), pp.8~16.

은준관, 『교육신학의 가능성』, 신학사상 6집, 1974, pp.583~608.

이종성, 칼빈, 예장교육부, 1968.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신교출판사, 1959.

한철하,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1965.5, pp.34~64.

한철하, 신복윤공역, 기독교강요, 생명의 말씀사, 1964.